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2023. 10.

(재) 대전문화재단 · 예술문화교육협동조합

제 출 문

(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최종보고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 연구 기관 예술문화교육협동조합
- 책임연구원 변상형 (한남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미학박사)
 - 연구원 엄광현 (한남대학교 강사, 예술학박사)
 - 연구원 공광식 (한남대학교 예술문화교육사업단 실장, 미술학석사)
- 연구보조원 김홍주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수료)
 - 박윤선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 이준희 (한남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 이예송 (한남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일러두기

- ◎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전역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기타 시설 등에서 진행된 활동 현황을 수집, 조사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음
- ◎ 중앙의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와 통계 시스템, 문헌 등을 비롯하여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 규모의 문화예술 및 기타의 정보 사이트와 통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하여 취합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음
- ◎ 기본적으로는 이번 조사범위로 최종 설정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의 전시, 공연, 교육, 행사, 출판 등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 대전 전역에서 시행된 문화예술 활동을 모두 조사,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접근방법과 수집 방법의 한계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도 있음
- ◎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개최장소, 개최 시기, 활동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도 최대한 조사기준과 범위에 맞춰 기록하고자 노력하였음
- ◎ 이번 조사 활동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서 기초조사를 통하여 설계한 활동 분류 기준과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료들은 자체 판단을 통해 집계 결과에서 제외하였음

문학 관련 자료 조사

- 문학 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을 거점으로 발간된 단행본과 문예지 등의 출판물, 문학 관련 교육, 행사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음
- 출판물의 경우, 조사 대상은 저자와 발간일, 출판사, ISBN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일부 상세정보가 누락 또는 생략한 경우와 정보 추적의 한계로 인해 수록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음

시각예술 관련 자료 조사

- 시각예술은 자체 설계한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음
- 시각예술은 11개 세부 분야를 설정,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음
- 혼합의 시각예술은 기본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간의 융합과 결합을 시도한 전시를 비롯하여 관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였음
-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상설전시로 진행된 전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비엔날레, 아트페어, 아트 이벤트 성격의 전시는 물론 시각예술 관련 학술대회, 포럼, 공모와 경연 등도 행사 활동으로 파악하여 시각예술 활동의 수록 범위 내에 포함하였음

공연예술 관련 자료 조사

- 공연예술은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복합(적 공연예술)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연 외에도 공연예술과 관련된 축제, 학술 대회, 도서 발행, 음반 발매, 공모와 경연 등의 활동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기존의 전통예술로 분류된 영역과 창극, 판소리, 약극 같은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 등을 공연예술의 범위로 파악, 포함하였음
- 음악은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음
- 연극에서는 극공연 외에도 뮤지컬공연과 마술공연, 인형극 등을 포함시켰음
- 무용에서는 한국무용과 서양무용 모두를 수록 범위로 설정하여 게재하였음
- 복합에서는 공연예술의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 간의 융합과 결합을 복합적으로 시도한 경우를 포함시켰음

다원예술 관련 자료 조사

- 다원예술은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애니메이션·웹툰으로 분류하였음
- 다원예술과 관련된 활동에는 공연, 전시, 행사, 상영, 출판 등이 포함되었음
- 다원예술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상영회와 관련해서는 대전 시내에 소재하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상업 영화들과 독립영화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도서관과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상영되는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음
-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원예술과 관련된 창작지원제도와 행사, 공연, 전시, 공모와 경연, 무비콘서트 등의 활동을 관련된 항목에 맞게 조정하여 수록하였음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조사

- 문화예술교육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별로 진행된 교육 활동의 결과를 분류, 수록하였음
-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지원으로 진행된 경우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공공주체는 물론 민간주체가 진행한 단발성 교육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생활예술 관련 자료 조사

- 생활예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은 대전문화재단의 공모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수록하였음

활동 시기 구분

-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 시기를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를 1분기로 하였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2분기, 전문예술 부문만 조사를 시행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를 3분기로 지칭하여 표기하였음

<혼합>과 <복합> 용어의 차이점

- 공연예술의 범위에만 적용된 <복합>이라는 용어는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 간의 결합과 다른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들이 한데 모여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공연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음악과 무용, 연극과 무용, 무용과 음악, 연극이 상호 결합되거나 한 데 모여 진행된 공연을 비롯하여 교육, 행사 등의 활동에 적용, 사용하였음
 - 반면, 문학과 시각예술 등에서 사용한 <혼합>이라는 용어는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 간의 결합을 통하여 진행된 활동에 적용, 사용하였으며,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회화와 사진, 사진과 뉴미디어, 공연예술의 경우는 무용의 서양무용과 한국무용, 성악과 기악공연, 문학의 경우에는 시와 소설 등의 결합을 통한 전시, 공연, 교육, 행사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 문화예술 기반 시설과 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문화예술인에 관한 조사는 중앙의 통계 시스템과 <대전광역시> 등록 자료, <한국예총 대전연합회> 산하의 단체들을 통해 조사된 자료, 자체 진행으로 수집된 정보와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음

차례

I. 조사 연구의 개요	13
1. 조사 연구의 개요	14
2. 조사 연구의 목적	14
3. 조사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14
4. 조사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5. 연구 흐름도	16
II. 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 개념과 대전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현황	17
1.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범주	18
2.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 구조와 현황	26
III. 조사체계와 내용	32
1.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	33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소분류 체계	38
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기타 분류체계와 내용	41

IV.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42
1. 전체 현황	43
2. 분야별 현황	
2-1. 문학	50
2-2. 공연예술	69
2-3. 시각예술	91
2-4. 다원예술	112
V. 종합 분석과 제언	129
1. 2022~2023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	130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한 제언	132
참고문헌	137

표 차례

<표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에 대한 정의	<표 32>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복지법>의 차이	<표 33>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3> 유네스코(UNESCO)의 예술인 개념	<표 34>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4>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주	<표 35>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5> 개정 이전,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주	<표 36>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6> 국내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문화예술 범주	<표 37>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의 정의	<표 38>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	<표 39>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표 9> 대전 지역 생활예술 단체와 동호회 현황	<표 40>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10> 대전 지역 문화예술 기반 시설 현황	<표 41>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11> 대전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분야별 현황	<표 42>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참여 대전 지역 예술인 현황	<표 43>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13> 대전 지역 생활예술 단체 현황	<표 44>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14>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	<표 45>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15> 대전 지역 문학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표 46>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16> 대전 지역 시각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표 47>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17> 대전 지역 공연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표 48>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18> 대전 지역 다원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표 49>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19> 대전 지역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의 소분류 체계와 활동유형	<표 50>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20>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소분류 체계	<표 51>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21>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유형	<표 52> 2020~2023년 대전 지역 문학 현황 비교
<표 22>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기타 지표 항목과 내용	<표 53>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23> 2020~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전체 활동 현황 비교	<표 54>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24> 2022~2023년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55>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25> 2022~2023년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56>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표 26> 2022~2023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57>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27> 2022~2023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58>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28>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59>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29>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60>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30>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61>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31>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62>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63>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64>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65>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66>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67>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68>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69> 2020~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현황 비교

<표 70>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1>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2>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3>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4>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75>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76>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77>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78>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79>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80>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81>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82>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83>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84>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85>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86> 2020~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현황 비교

<표 87>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88>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89>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90>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표 91>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92>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93>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94>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95>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96>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97>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98>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99>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100>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101>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102>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103> 2020~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현황 비교

<표 104>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105>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106>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107>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I. 조사 연구의 개요

1. 조사 연구의 개요
2. 조사 연구의 목적
3. 조사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4. 조사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연구 흐름도

1. 조사 연구의 개요

연구과제명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발주기관	대전문화재단
연구기관	예술문화교육협동조합
연구 기간	2023. 5. 4 ~ 2023. 10. 13

- ◎ 연구의 내용 및 시간적 범위 : 조사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현황 조사 및 분석

전문예술 부문	2022년 1월 ~ 2023년 6월까지의 활동 현황
생활예술 부문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의 활동 현황
문화예술교육 부문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의 활동 현황

2. 조사 연구의 목적

-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및 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유형과 예술 장르,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현황 등을 조사한 후 취합된 자료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중앙의 표준화된 조사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반영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생태계 흐름을 활용하고자 함
- ◎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정책 마련과 수립의 기초자료로 기능하고자 함
- ◎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및 파악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향후 문화예술정책 및 <대전문화재단>의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방향성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함

3. 조사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 ◎ 지역의 발전은 다른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의 추진과도 조화롭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흐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함

- ◎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 이외에도 최근의 문화예술계의 흐름과 경향을 고려, 생활예술과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 및 추이에 주목하고자 함
- ◎ 코로나 19로 인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워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통하여 이후의 문화예술 활동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 대전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전체적인 활동유형과 예술 분야,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현황 등을 조사한 후, 취합된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확보하고자 함

4. 조사연구의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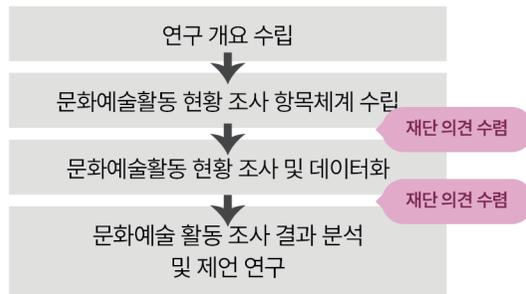
1) 조사연구의 내용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 전역에서 행해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 ◎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부문별로 시기를 설정하여 조사 시행
 - 기존의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분류체계 및 추가 조사사항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대전 소재 문화예술 단체와 관련 주체의 활동유형 구분 및 범위를 재설정하여 조사 연구 실시
 - 기존의 활동유형 구분 및 범위를 확장하여 전문예술 외에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조사체계를 설정하여 조사 연구 실시
 -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분류체계와 부문별 분류체계에 따라 대전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 연구 실시
 - 위에 명시한 연구 조사의 시간적 범위에 맞춰 부문별로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실시
- ◎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으로 세분화된 조사체계에 맞춰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데이터 자료화 실시
 - 확정된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분류체계와 내용에 맞춰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분야별 현황조사 추진
 -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공적 지원 여부에 관한 자료 수합 및 정리를 통하여 공적 지원 현황 분석 실시
 - 이상의 조사내용을 데이터화하고, 편람화하는 작업 진행
- ◎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의 정책 설정과 방향 구축에 필요한 제언 제시

2) 조사 연구의 방법

- 대전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의 현장 활동과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분석
- 국내의 문화예술 관련 주요 기관 및 시설, 단체 등에서 발행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타 시도 정책연구 기초자료를 비롯하여 국내 관련 논문 탐색 및 분석
-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현장 담당자와의 접촉, 간접 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한 조사 및 수집, 분석

5. 조사 연구의 흐름도



II. 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 개념과 대전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현황

1.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범주

- 1) 전문예술의 정의와 범위
- 2) 생활예술의 정의와 범위
- 3)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위

2.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 구조와 현황

- 1)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 현황
- 2) 대전 지역의 전문예술 단체 및 법인 현황
- 3) 대전 지역의 전문문화예술인 현황
- 4) 대전 지역의 생활예술 단체 현황

1.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범주

- ◎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던 예년의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들과는 달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을 각각의 개별 분야로 파악하여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음
-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설정한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를 지니게 되는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 정책적 대상으로 이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정에서 상위 법규로 다루지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3.08.08)을 먼저 살펴봐야 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련 법규, 법령 대다수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되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등을 규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규 등이 20여 가지 존재하고 대전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기본법>(시행 2021.09.11),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22.07.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 2023.08.08), <공연법>((2008.02.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08.08), <문학진흥법>(2021.11.19), <영상진흥기본법>(2008.02.2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23.08.08)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규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조례 등을 토대로 하여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였음

1) 전문예술의 정의와 범위

- ◎ 전문예술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고 행하는 직업예술가 또는 특수직업, 즉 예술인에 의해 행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우리나라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2.09.25.)에서는 예술 활동과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에 대한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	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출처 : <http://www.law.co.kr>

- 문화예술 활동 경력의 유무를 가지고 직업예술가를 규정하던 이전의 <예술인복지법>(시행 2012.11.18)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복지법>의 차이

예술인의 범주 확대	
예술인 복지법('12.11.18. 시행)	예술인권리보장법('22.9.25 시행)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출처 : <http://news.kawf.kr>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직업예술인을 정의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1980)에서 명시된 직업예술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업예술인의 정의 내지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표 3> 유네스코(UNESCO)의 예술인 개념

유네스코(UNESCO)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예술인'이란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창조적 표현을 제공하거나 또는 재창조하는 사람, 예술적 창조를 자기 삶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고용되어 있거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출처 : <https://unescomkor.cafe24.com>

<표 6> 국내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문화예술 범주

구분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 일반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회화, 조각·설치, 사진, 현대공예, 판화, 골동품, 목기, 전통 회화, 미디어 아트), 공연예술(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학, 미술, 디자인, 공예, 서예, 사진, 미술, 종합 및 기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 일반, 영화·애니메이션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사업을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2019)

-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전문예술의 정의와 범주를 앞의 사례들을 통해 제시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교육 기관 내지는 여타의 기관들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들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전문예술인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업으로 삼는 이들로 규정하고자 함
- ◎ 요컨대, 전문예술이라 함은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현재, 활동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문화예술 활동을 자기 생활의 일부이자 직업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전문예술인이자 특수직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설정하고자 함

2) 생활예술의 정의와 범위

-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생활예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 생활문화와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과 시민예술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사용되는 생활예술, 생활문화, 생활문화예술, 시민예술의 개념 가운데 생활문화라는 용어만이 정책적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22.07.19.)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의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출처 : <https://law.go.kr>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유네스코(UNESCO)>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의지와 의사에 따라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 행해지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이들을 전문예술인으로 설정하고 있음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범주와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은 다음과 같음

<표 4>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주

문화예술진흥법
<p>제2조(정의)</p> <p>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p> <p>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 출처 : <http://www.law.co.kr>

- 2022년 8월, 개정 이전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의 정의 및 범위와 2022년 8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명시하는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 참고로, 개정되기 이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시하는 문화예술 범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5> 개정 이전,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의 범주

문화예술진흥법
<p>제2조(정의)</p> <p>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p>

* 출처 : <http://www.yeslaw.co.kr>

- ◎ 현재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시행 2022.12.30)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학을 비롯하여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등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음
- ◎ 이와 함께 국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는 상기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면서도 나름의 문화예술 범주와 분류체계를 재규정하여 소위, 문화예술의 범주와 준거로 설정해 사용하고 있는데, 몇몇 주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주와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책적 개념으로 제시한 생활문화의 개념과 틀을 통해 생활예술을 파악하려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음
- 자발적 예술, 비공식 예술, 참여 예술, 아마추어 예술, 시민예술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인이 아닌 비전문예술인 내지는 일반인 모두가 개인의 다양한 사적인 목적과 자발적인 참여 아래, 수행하는 전문예술과 그 이외의 예술적 영역의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이자 용어라 할 수 있음
 -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문화 내지는 문화적 활동을 전제로 행해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문화라는 개념이 논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예술을 포함하여 삶의 방식과 태도 등을 담보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할 때, 생활문화는 생활예술이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생활예술은 생활문화 활동의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생활문화 그 자체는 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은 지역과 생활권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동아리, 동호회 등의 집단과 모임을 통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생활예술은 자기를 계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와 의지 속에서 배태된 공통의 예술적 관심사와 취미로 집단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형성해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개념이자 용어로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 지역이라는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수행되는 생활예술은 무제한적인 시공간 속에서 수행되는 전문예술과도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생활예술을 정책적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시하는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연예 등과 문화산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범주와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예술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문예술인들은 직업으로 전문예술 활동을 수행하여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이득 등을 얻고자 하는 데 비해 생활예술은 자비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는 하나, 취미와 여가를 비롯하여 자기 계발, 관계 맺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봉사와 공헌 등을 위해 수행하는 부차적인 생활 활동이라는 점에서 전문예술 활동과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전문예술이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시간 투자를 통해 계발되는 활동인 데 비해 생활예술은 전문예술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교육과 훈련, 시간 투자가 요구되기는 하나, 이러한 조건들이 필수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차이점을 전문예술이 무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개되는 문화예술 활동인 데 비해 생활예술은 주로 지역과 생활권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문화예술의 향유와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한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시행 2021.07.30.)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 이상의 내용을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전문예술을 비롯하여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생활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과 앞에서 제시한 여타의 문화예술 정의와 범주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파악하고자 함
 - 생활예술의 경우, 직업예술인의 개별적 활동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문예술과는 달리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아래, 이뤄지는 동아리, 동호회,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집단적 모임과 활동을 매개로 수행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설정하고자 함
 - 아울러 생활예술은 결과 지향적으로 수행되는 전문예술 활동과 달리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시하면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함
 - 이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예술 활동은 전문예술가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을 활동의 촉매자로서 필요로 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활동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 이상의 활동을 통해 비전문예술인 내지는 일반인들이 단순한 문화적 향유와 소비 차원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과 생활권을 전제로 한 문화적 생산과 충족을 집단적인 활동으로 표출하고 이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예술로 이해하고자 함

3)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위

- ◎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예술, 교육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연결된 문화예술교육이 일반화되어 사용하게 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후에는 전문예술과 교육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는 모든 교육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 정책적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법규에 명시된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음
 - 정책적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비롯하여 범위, 인력,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는 다음과 같음

<표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p>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p> <p>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p> <p>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p>

* 출처 : <http://www.yeslaw.co.kr>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공예, 디자인, 사진, 영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한정하고 있음
- 소위, 예술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주로 공교육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미술교육, 음악교육, 무용 교육 등의 정규 예술교과 교육을 제외한 일반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과 방과 후 교육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 반면, 공공주체 또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유·청소년에서 노년 세대까지를 아우르는 전문예술 창작과 감상 교육을 비롯하여 취미나 여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반인들의 문화예술교육,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등은 물론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비전문가 전문인력 재교육까지도 포함해 시행되는데,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벗어난 모든 교육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생활예술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역 내 공동체와 문화기반 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조건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문화예술의 범주를 교육의 범주로 설정하여 진행하기도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아니라더라도 교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범주 또한,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여러 공공 부처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기본법>, <교육기본법>(시행 2023.09.27.),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09.27.), <평생교육법>(시행 2023.09.26) 등의 법규들을 참조하여 앞에서 제시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 정책적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이라는 개념과 범주는 미술교육, 음악교육, 연극교육 등 개별 전문예술 분야들에 대한 교육을 통칭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
 - 예술교육의 범주 또한, 전문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과 전문성 배양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과 전문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반인들의 인성과 감성 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술교육은 과거의 전문가 중심 교육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제시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등의 현장에서 모두 실시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예술교육의 현장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예술교육과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이라는 개념과 범주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혼재하여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 ◎ 다양하게 해석되는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문화교육이라는 개념과 예술개념은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층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문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교육은 예술교육과 연계해 정의되고 예술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예술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라 하겠음
 - 우리나라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와 풍습, 관습, 신념 등 문화를 이루는 요소와 소재 그 자체를 교육적 요소와 소재로 하는 문화교육은 예술을 교육적 내용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전문예술과 그 외의 예술적 활동 등에 대한 이해와 체험 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교육보다는 더 넓은 범주와 요소를 하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함
- ◎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상위법으로 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지원 지원 조례>(시행 2021.10.01)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없는 지역문화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범주를 전문예술을 교육적 내용과 요소로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함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가운데 정규 예술교과 과정과 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해석하고자 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유·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 모두가 다양한 목적 아래, 전문예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생산과 소비,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활동으로 파악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통해 규정된 정책적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넘어 앞에서 살펴본
왔듯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학은 물론 문화산업 등을 통해 행해지는 전문예술의 정의와 범주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 활동 일체를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와 풍습, 관습, 신념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적 내용과 요소로 하는 문화교육이기는 하
나, 전문예술을 이용하거나 그 외의 예술적 요소와 수단을 활용한 문화교육도 문화예술교육과 그 외연의 확장 속에
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이해하고자 함

2.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 구조와 현황

- ◎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을 정규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전
국의 문화기반시설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조사체계가 다른 까닭에 대전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
술 관련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겠음
- ◎ <대전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조사들 대부분이 문화예술 관련 시
설을 중심으로 한 조사이며 문화예술인 실태에 대한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
시 전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표본 추출에 의한 방식으로 전국의 예술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 ◎ 이상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과 기반 구
조에 대한 사항을 추출해볼 수가 있었음

1)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기반 시설

- ◎ <대전광역시>의 2022년 5월, <대전의 통계>에서 발표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2022)에 따르면, 대
전광역시에 소재한 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 도서관 등과 지역 문화원, 전수회관, 문학관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2021년 12월 기준, 393곳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 <대전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가장 많이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도서 시설이었으며 대전
광역시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24곳과 255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시설로는 실내공연장 59곳과 야외공연장 4곳을 모두 포함하여 63곳이며 중구에 가장 많은 공연시설이 소재
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 영화관 19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화폐박물관>과 <대전시립
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성암미술관> 등 19곳의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각 자치구에 5곳의 문화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수회관, 국악원, 문학관, 복합문화시설 같은 8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발표한 <대전광역시>의 자료에는 갤러리와 상업적 시설에 대한 현황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앞 전의 2021년 3월 기준으로 한 발표 자료에는 47곳의 갤러리와 화랑이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대전광역시>의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전광역시에는 4곳의 생활문화센터와 유성구에 <국립중앙과학관> 1곳이 운영되고 있음
- 2021년 3월과 12월 기준으로 발표한 <대전광역시> 자료를 비교해보면, 대전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20곳에서 19곳으로 감소하였으나, <국립중앙과학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포함시키면, 20곳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이 자료들을 통해 공연시설 가운데 실내공연시설이 57개소에서 59개소로, 작은 도서관이 251곳에서 255곳으로, 영화관은 15곳에서 19곳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보유한 자치구는 유성구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서구였음
- <대전광역시>의 자료에는 지역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과 2021년, 동구에 오픈한 <디캔센터>, 2022년에 개소한 <대전 음악창작소> 등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전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2) 대전 지역의 전문예술 단체 및 법인 현황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전문예술단체·단체현황>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2023년 기준, 57곳인 것으로 나와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등록된 대전 지역의 전문예술단체법인은 57곳이며 이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연극(15곳)→음악(12곳)→전통예술(11곳)→기타(11곳)→무용과 시각예술(각각 4곳)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광역시>에서도 전문예술단체·법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단체·법인은 2022년 기준, 50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외에도 대전 지역에는 <대전시립예술단>이 있으며,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합창단>이 속해 있음. 또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과 <대전시립국악단>이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집계를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대전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사업체 등은 대략 1,3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분야는 공연예술이었음

3) 대전 지역의 전문문화예술인

- ◎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어려우나 간접 자료와 활동 실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기본적으로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견 전문예술인들은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산하 단체들에 등록하여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현황은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572명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31호-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2020)를 살펴보면,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에 소속한 이들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조사 대상자 중 21.1%가 소속 단체 없이 활동하는 이들로 보고하고 있음
 -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을 표본 추출하여 전국의 전문예술인 활동 현황을 조사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2021)에 대전 지역의 전문예술인 6,08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은 (디자인을 포함 한) 미술 1,991명, 공예 37명, 사진 717명, 음악 770명, 국악 520명, 대중음악 242명, 방송연예 87명, 무용 294명, 연극 288명, 영화 112명, 만화 50명, 건축 71명, 문학 710명, 기타 48명과 미분류 151명이었음
 - 전문예술인 자격으로 학교예술강사 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은 170명이며 국악 68명, 무용 41명, 연극 24명, 만화 애니메이션 18명, 디자인 3명, 공예 8명, 사진 4명, 영화 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4) 대전 지역의 생활예술 단체

- ◎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집계하는 것은 전문예술단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음
 -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대전 생활문화 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2017)에서는 공공동호회와 민간동호회라는 개념과 범주를 가지고 대전 지역의 생활문화 단체를 조사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대전 지역에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호회가 대략 582곳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2022 생활문화활동 단체(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45곳의 단체를 생활문화 단체(공동체)로 지정,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문학 분야 16곳, 시각예술 51곳, 공연예술 87곳을 생활문화 활동 단체(공동체)로 지정, 지원하였음
 - 2022년에는 <2022 대전 마을합창단 지원 사업>을 통해 34곳의 마을합창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뿐 아니라 <대전문화재단>의 자료를 통해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서구의 47곳, 유성구의 27곳, 중구의 23곳, 대덕구의 11곳, 동구의 7곳을 지역 생활문화 단체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

<표 9> 대전 지역 생활예술 단체와 동호회 현황

구분	공공동호회	민간동호회
도서관 동아리	101	-
무용 부문 동호회	20	5
국악 부문 동호회	36	25
대중음악, 세미클래식 부문 동호회	39	-
합창, 클래식 음악 부문	16	-
음악 부문 동호회	-	40
연극 부문 동호회	12	5
낭송/창작 부문 동호회	8	18
독서회 부문 동호회	33	71
회화 부문 동호회	16	20
서예 부문 동호회	8	14
디자인, 캘리그래피 부문 동호회	8	0
공예 부문 동호회	16	6
사진	-	14
기타 동호회	31	20
합계	344	238
총합계	582	

*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 생활문화 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2017)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10> 대전 지역 문화예술 기반 시설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2022), <대전의 통계> (2022) 등을 참조, 재작성

<표 11> 대전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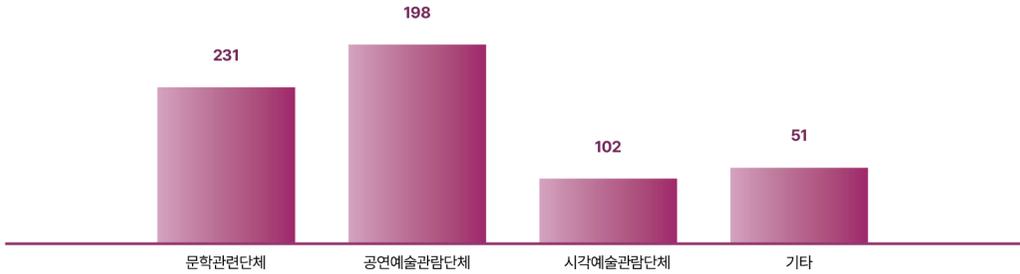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단체·법인 현황> (2023)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참여 대전 지역 예술인 현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 조사> (2021)

<표 13> 대전 지역 생활예술 단체 현황



*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 생활문화 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2017)

III. 조사체계와 내용

1.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의 소분류 체계
- 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의 기타 분류체계와 내용

1.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

- ◎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하여 시행된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2022)와 달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을 각각 분류하여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 ◎ 따라서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부문별 특성에 맞춰 분류체계를 달리 설정하여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 ◎ 2023년의 현황 조사에서는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 제시된 분류체계에 바탕을 두고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를 설정하였음
 - 기본적으로는 2022년의 조사체계에 바탕을 두되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부문별 특성과 성격에 맞춰 중분류 체계와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재구성하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전반적인 지표체계와 내용을 재설정하였음
 - 2022년의 조사체계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로 문화예술 활동의 대분류 체계로 설정하고 있음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를 대분류 체계의 특성과 성격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여 아래와 표와 같이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를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대전 지역의 전문예술을 비롯하여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현황 조사에도 공통으로 적용하여 조사 활동을 시행하였음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 적용한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4>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문학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희곡·시나리오, 혼합
시각예술	공예, 디자인, 서예, 회화, 드로잉, 판화, 서예, 조각·설치, 건축, 사진, 뉴미디어, 혼합
공연예술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복합
다원예술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애니메이션·웹툰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문학진흥 기본법>과 문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문학의 보편적 원리와 갈래 체계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문학 분야 중분류 체계와 범위를 일부 재구성하여 적용하였음

<표 15> 대전 지역 문학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문학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소설	- 소설과 같이 산문으로 서술한 서사나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된 창작물을 통해 진행되는 출판, 전시, 공연, 행사 등의 활동
수필	- 수필, 기행문 등과 같이 창작 주체의 관점에서 산문 형식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통해 진행되는 출판, 전시, 공연, 행사 등의 활동
시	- 시, 시조와 같이 언어의 운율을 압축적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통해 진행되는 출판, 전시, 공연, 행사 등의 활동
아동문학	- 동시, 동요, 전래동화, 창작동화, 그림책 등과 같이 어린이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동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흥미를 자아내는 창작물을 통해 진행되는 출판, 전시, 공연, 행사 등의 활동
희곡·시나리오	- 희곡, 시나리오와 같이 상연을 전제로 제작된 창작물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출판, 전시, 공연, 행사 등의 활동
혼합	- 문학의 중분류에 속하는 서로 다른 분야들이 둘 이상 결합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출판, 전시, 공연, 행사 등의 활동

-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 분류체계로 사용되는 ISBN과 ISSN을 확보하고 국제 출판물 표준 지표인 ISEN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창작물을 문학 활동의 결과물로 이해하여 조사하였음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연감>,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등을 참조하여 설정한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시각예술 분야 중분류 체계와 범위를 일부 재구성하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 적용하였음

<표 16> 대전 지역 시각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시각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건축	-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목적에 맞게 계획, 설계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공예	- 도자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등과 같이 실용적인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뉴미디어	-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 디지털 아트 등과 같이 텔레비전, 비디오 필름, 컴퓨터, 디지털 장치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디자인	-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거나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드로잉	- 스케치, 크로키 등과 같이 평면예술의 기초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사진	- 기록사진, 풍경사진, 인물사진 등과 같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서예	- 서예, 전각, 캘리그래피 등과 같이 문자를 소재로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조각·설치	- 석조, 목조, 용접, 소조 등과 같이 공간 속에 입체성을 표현하거나 오브제, 조명, 음향, 영상 등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을 작품화 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판화	- 목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 디지털 프린트 등과 같이 판을 이용하여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회화	- 한국화, 서양화 등과 같이 다양한 안료와 재료 등을 사용하여 평면적으로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혼합	- 시각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서로 다른 분야들이 둘 이상 결합하여 제작된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 <공연법>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인터넷 공연예매 시스템 등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구성한 2022년의 공연예술 분야 중분류 체계와 범위를 일부 재구성하여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 적용하였음

<표 17> 대전 지역 공연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공연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국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통 악기와 노래 형식으로 연주하거나 실연하면서 우리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공연 - 풍물, 사물놀이, 굿, 악극, 창극 등과 같이 다양한 전통 악기와 노래 형식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한데 어울려 실연되는 공연 - 국악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된 혼합적 공연 - 이상의 것들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과 자료 등의 이차 제작 및 전시, 출판, 상영, 행사 등의 활동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악기와 노래 형식으로 연주하거나 실연하면서 전개되는 공연 - 관현악, 합창 등과 같이 다양한 서양 악기와 노래 형식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한 데 어울려 실연되는 공연 - 문학적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음악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오페라 공연 - 대중음악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악기와 노래 형식을 사용하여 연주되거나 실연되는 공연 - 음악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된 혼합적 공연 - 이상의 것들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과 자료 등의 이차 제작 및 전시, 출판, 상영, 행사 등의 활동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통 무용의 형식을 바탕으로 실연되거나 창작되는 공연 - 서양에서 발달해온 무용의 형식을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실연되는 공연 - 무용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실험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실연되거나 제작된 공연 - 스트릿 댄스, 실용댄스 등의 대중무용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무용 형식을 사용하여 실연하거나 제작된 공연 - 무용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혼합적 공연 - 이상의 것들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과 자료 등의 이차 제작 및 전시, 출판, 상영, 행사 등의 활동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본에 따라 배우와 무대 등을 사용하여 실연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연 - 연극과 음악, 무용 합쳐 전개되는 뮤지컬과 극 전개에 음악이 부수적인 장치로 사용되는 음악극 등과 같이 대본을 바탕으로 무용과 음악 등이 합쳐져 실연되거나 제작된 공연 - 인형극, 널버벌 퍼포먼스, 쇼 등과 같이 공연적 요소를 갖고 실연되거나 제작된 공연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장치나 트릭을 사용하여 무대에서 실연되는 공연 - 연극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된 혼합적 공연 - 이상의 것들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과 자료 등의 이차 제작 및 전시, 출판, 상영, 행사 등의 활동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의 분야들이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공연 - 이상의 것들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과 자료 등의 이차 제작 및 전시, 출판, 상영, 행사 등의 활동

◎ 2022년에 설정한 다원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를 일부 재구성하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 적용하였음

<표 18> 대전 지역 다원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다원예술의 중분류 체계와 범위	
탈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와 연극, 무용과 영화, 건축과 음악 등과 같이 다른 대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들이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제작되거나 실행되는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상영 및 시사회, 행사 등의 활동
다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과 무용, 여행과 소설, 사진과 음식, 역사와 음악 등과 같이 비예술적인 영역과 시각 예술, 공연예술, 문학의 중분류에 속하는 예술 활동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실행되는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 공연, 출판, 상영 및 시사회 등의 활동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결과물을 제외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의 창작물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상영과 시사회, 전시,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 -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 등을 문화예술 기반 시설 등에서 재상영하는 상영 및 시사회, 행사 등의 활동
만화·웹툰·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과 글로 구성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만화와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거나 원작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활동 및 결과물 - 온라인 배포를 전제로 제작되는 웹툰 제작물 - 이상의 것들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과 자료 등의 전시, 공연, 출판, 상영 및 시사회, 행사 등의 활동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의 소분류 체계

◎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이 각각 분리되어 조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서 진행되는 활동 성격과 특성 등에 맞춰 소분류 체계와 활동유형을 재설정하였음

-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소분류 체계와 활동유형은 공통으로 설정하여 적용하였음
-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은 활동 주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만 활동의 영역과 활동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됨
- 이와 더불어 생활예술은 문화예술 활동의 소비 차원을 벗어나 누구나 문화예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그 활동을 생활권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통해 진행해가느냐, 생활권을 벗어난 무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진행해가느냐에 따라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은 차이를 보여주는 분야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소분류 체계와 활동유형은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설정하였음

<표 19> 대전 지역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의 소분류 체계와 활동유형

소분류 체계	활동유형
출판	- 단행본 :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 서적 - 전자책 : 종이책이 아닌 디지털 정보로 가공되어 출간된 서적 - 문예지 : 문예 작품들로 구성되어 잡지 형태로 출간된 서적
전시	- 개인 : 개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전시 - 단체 : 집단 또는 여러 유형의 유물과 자료 등을 한데 모아 진행하는 전시
공연	- 성악공연 : 사람의 목소리로 만든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 - 기악공연 :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 - 대중음악공연 : 클래식을 제외한 가요, 재즈 등 대중 매체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즐기고, 대중적 정서와 상업적 성격이 반영된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 - 극공연 : 배우들이 이야기의 내용을 연기하며 진행되는 공연 - 인형극 : 살아 있는 배우가 아닌 물체를 이용한 공연 - 뮤지컬공연 : 뮤지컬을 바탕으로 한 공연 - 마술공연 : 마술쇼, 버블공연, 버블쇼 등을 바탕으로 한 공연 - 마임공연 : 몸동작과 몸짓 등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공연 - 무용극공연 : 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공연 - 한국무용공연 : 한국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한 공연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무용공연 ; 발레 등 서양무용을 바탕으로 한 공연 또는 재즈댄스, 스트리트 댄스, 실용음악 등 전통적 형식을여러 장르를 결합한 무용을 바탕으로 한 무용 공연 - 풍물공연 : 한국 전통 악기인 풍물을 바탕으로 집단적 움직임과 몸동작을 통해 진행되는 공연 - 연희공연 : 이야기의 내용을 말과 몸동작으로 전달하며 진행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연 - 혼합공연 : 성악과 기악 등 공연예술과 관련된 여러 분야와 형식의 공연이 결합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공연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회 : 영화, 애니메이션, 기타 영상물을 상영하여 진행하는 모임 내지는 행사 - 시사회 : 영화, 애니메이션, 기타 영상으로 제작된 결과물을 일반 공개하기에 앞서서 진행하는 행사 내지는 모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일련의 행사가 조직화되어 특정한 장소와 일시, 기간에 진행되는 행사 - 낭송회, 낭독회 : 시와 소설 등 문예 작품을 소리 내어 진행되어 공연 - 북콘서트 : 특정 인물이나 창작자 등이 자신의 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거나 특정의 주제를 가지고 독자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행하는 행사 내지는 모임 - 포럼 : 특정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나 토론이 진행되는 행사 또는 모임 - 공모 :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개인 창작물을 모집하는 행사 - 경연 :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실력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행사 - 기념식 : 특정한 날이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행사 - 독서모임 : 책을 읽고 토론하는 행사 또는 모임 - 글쓰기모임 :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글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지는 일자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모임 또는 행사 - 샌드아트공연 : 빛과 모래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형식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공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유형의 활동이 결합하여 특정의 활동과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행사 내지는 활동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제시되어 있는 분류체계와 소위, 제도적 환경에 따른 구분체계로 지칭되는 분류체계 등을 따라 소분류 체계를 설정하였고,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방식과 성격에 맞춰 활동유형을 설정하였음

- 문화예술교육의 소분류 체계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과 기본 체계를 분류하였음

<표 20>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소분류 체계

소분류 체계	내용
학교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서 정규교과로서 실시된 예술교육과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문교육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학교 안에서 예술강사의 참여로 진행하는 정규교과 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부처간 연계로 창의성 배양과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이 외의 학교 교육의 교과과정과는 연계되기는 하나, 지역공동체와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 및 단체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사회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한 문화예술 시설,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문화예술교육 활동 -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으로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창작 및 감상, 체험 등의 전제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주체의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공공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일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사설 학원이나 교육시설 등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유형은 강의형활동, 체험형활동, 복합형활동으로 구분하였고, 분류체계의 기본 전제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음

<표 21>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유형

활동유형	내용
강의형활동	- 문화예술 작품에 감상과 지식 배양, 이론 학습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
체험형활동	- 문화예술에 대한 제작기법이나 기능 등을 습득하거나 문화예술의 제작과 실연 과정을 체험하며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복합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형활동과 체험형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프로젝트의 성격과 결과 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의 기타 분류체계와 내용

◎ 지금까지 제시한 분류체계와 활동유형이 진행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공통 분류체계 항목과 지표 내용을 설정하였음

- 활동형태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문화예술 활동의 진행방식으로 정착한 비대면 진행방식의 여부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체계이며 단행본, 전자책, 문예지, 잡지 등 출판 활동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출판물 표준 지표인 ISBN과 ISSN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로 활용함

- 이와 더불어 2022년의 지표체계를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위한 지표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였고,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2>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기타 지표 항목과 내용

지표 항목	내용
시작일	- 전시, 공연, 상영 및 시사회, 행사 등의 활동이 시작된 일자 표기 - 출판 활동에서 출판물의 발간 날짜 표기
종료일	- 전시, 공연, 상영 및 시사회, 행사 등의 활동이 종료된 일자
활동 기간	- 활동이 시작된 날짜와 종료된 일자 동안 실제로 활동이 진행된 일수 표기
활동 주최	-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개인, 단체, 기관, 시설 등을 표기 - 출판 활동의 경우, 발간물을 출판한 저자나 역은이 등을 출판 활동의 주체로 파악해 표기 - 출판사 등도 활동 주최의 주체로 이해해 표기
활동 주관	- 활동을 주관한 개인, 단체, 기관, 시설 등을 표기 -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사 등도 활동을 주관한 주체로 파악해 표기
활동주최·주관 구분	-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여 표기
활동 장소	-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와 시설, 기관 등을 표기 - 출판 활동의 경우, 발간을 주도하거나 출판 주체, 출판사 등을 활동 장소로 이해해 표기
활동 장소운영 주체	-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장소, 시설 등을 운영하는 주체를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여 표기
자치구	- 활동이 진행된 장소, 시설, 기관 등이 속한 자치구 표기
비고	- 공공지원의 유무 관계 표기

IV.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1. 전체 현황

2. 분야별 현황

2-1. 문학

2-2. 공연예술

2-3. 시각예술

2-4. 다원예술

1. 전체 현황

-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집계된 문화예술 활동은 5,713건으로 집계되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조사된 대전 지역 문화예술 전체 활동 중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활동은 3,785건인 것으로 집계됨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생활예술 활동의 전체 활동은 617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는 1,311건의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조사된 전문예술 분야의 전체 활동은 행사, 공연, 전시,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공연예술(1,741건)→시각예술(964건)→문학(700건)→다원예술(380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기의 기간 동안 전문예술 부문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것은 공연이었으며 그 외의 활동 현황들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연(1,692건)→전시(976건)→출판(566건)→행사(411건)→상영(99건)→지원(38건)→기타(2건)→음반(1건)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상기의 기간 동안 진행된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1,715건)→3분기(1,052건)→1분기(1,018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전문예술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1,204건)→중구(1,101건)→유성구(708건)→동구(612건)→대덕구(150건)→미상(10건) 순으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나눠 정리해보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한 활동은 전체 활동의 61%를 조금 웃도는 2,599건이었고, 민간주체가 열거나 진행한 활동은 1,141건이었으며 민간과 공공 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활동은 45건이었음
-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공연예술에서 가장 활발한 진행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공주체보다도 민간주체에 의한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별 활동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원예술(189건)→공연예술(167건)→시각예술(132건)→문학(129건) 순으로 나타났음
 - 상기의 기간에 진행된 생활예술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행사(373건)→공연(139건)→전시(95건)→출판(7건)→상영(3건)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유성구(181건)→중구(175건)→서구(136건)→동구(65건)→대덕구(59건)→미상(1건) 순으로 활동이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166건이 진행된 데 비해 하반기에 해당하는 2분기에 451건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나눠 정리해보면, 민간주체가 295건, 공공주체가 318건, 4건이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활동이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1,311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는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연 예술이었으며 그 외의 분야들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시각예술(498건)→공연예술(337건)→다원예술(343건)→문학(133건) 순으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전 분야를 망라하여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진행된 분야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활동이 있었던 분야는 다원예술의 다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공연예술의 음악이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리해보면, 다제간(157건)→음악(151건)→시각예술의 공예(145건)→다원예술의 탈분류(128건)→시각예술의 회화와 공연예술의 무용(각각 126건) 등의 순으로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1,278건 진행된 데 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33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개최된 <BTS(Beat To Story)>의 경우, <목동초등학교>, <죽동초등학교> 등 대전 지역 5곳의 초등학교에서 학교당 5회씩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흥초등학교>와 <버드내초등학교> 등 대전에 소재한 8곳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각 학교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체험형활동이 전체 활동의 74%를 조금 웃도는 973건 진행된 데 비해 복합형활동으로 진행된 활동은 204건이었으며 나머지 134건은 강의형활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 현황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388건)→유성구(313건)→서구(298건)→대덕구(174건)→동구(137건)→미상(1건) 순으로 활동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나눠 정리해보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한 활동은 전체 활동의 약 94%에 이르는 1,236건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열거나 진행한 활동은 75건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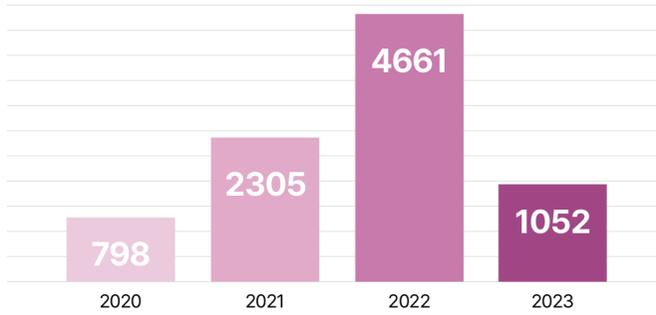
◎ 2021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활동이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전문예술 활동과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합쳐 2022년에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을 집계해보면, 4,661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던 2021년 결과와 상기의 2022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2021년의 2배가 약간 넘는 활동이 2022년, 대전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의 활동 현황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활동 분야는 다원예술이었으며 다원 예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약 4배가 늘어난 활동이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연, 전시 등을 통한 활동보다는 문화예술교육과 행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음
- 2021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활동이 증가한 활동 부문은 문화예술교육 부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요인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224건밖에 파악이 되지 않았던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이 2022년에는 1,311건의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에서 잘 나타나듯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많았던 데 비해 2022년에는 비대면 방식 또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은 223건에 불과하였음
- 2022년 활동의 경우,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워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사회적 거리두기와 워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음
-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열렸던 전문예술 부문의 축제들 대부분이 대면 진행방식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거점으로 한 축제가 활발히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표 23> 2020~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전체 활동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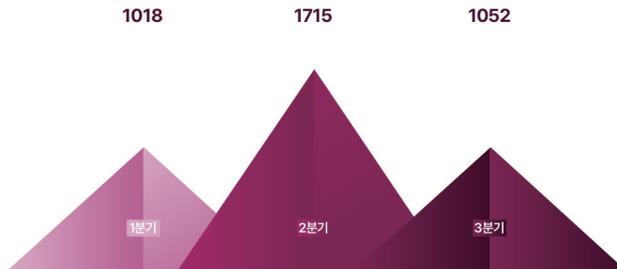
* 2023년도는 전체 활동 중 전문예술 부문만 집계한 건수임

<표 24> 2022~23년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25> 2022~23년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26> 2022~2023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27> 2022~2023 대전 지역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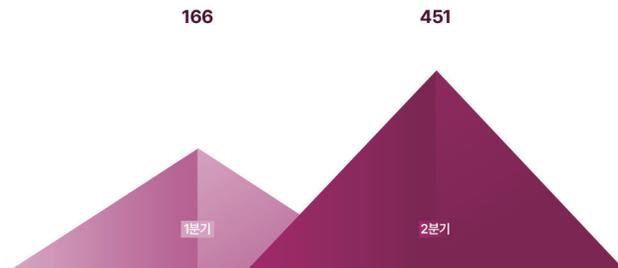


<표 28>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29> 2022~23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30>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31> 2022년 대전 지역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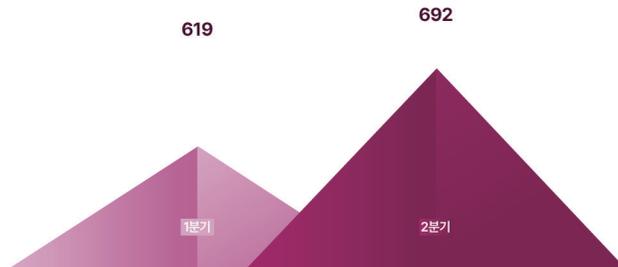


<표 32>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33>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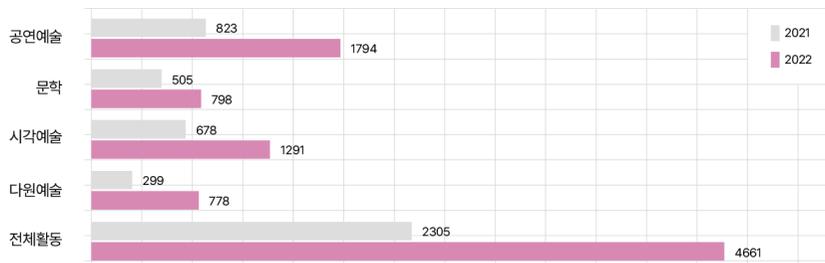
<표 34>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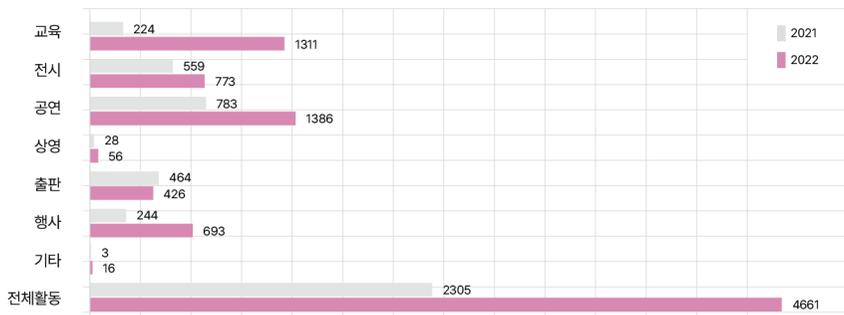
<표 35> 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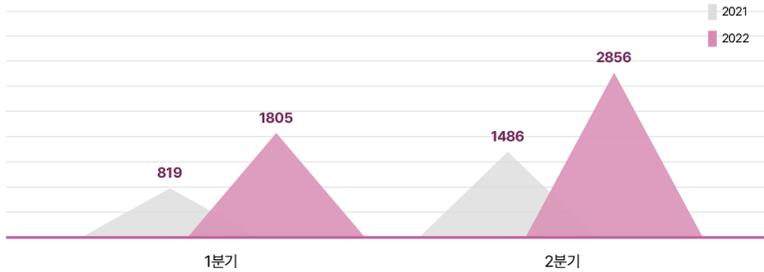
<표 36>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표 37>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38>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39>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2. 분야별 현황

2-1. 문학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 부문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 문학 분야의 전체 활동은 총 962건으로 집계되었음

-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문학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을 부문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전문예술에서는 700건의 활동이 있었고, 129건이 생활예술 부문에서 진행되었으며 133건의 활동이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활동의 78%에 이르는 750건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으며 212건이 공공주체에 의해 추진되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문학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시(366건)→수필(136건)→혼합(111건)→소설(43건)→아동문학(39건)→희극-시나리오(5건) 순으로 진행되었고, 출판을 통한 553건의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138건의 행사와 9건의 전시가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개최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활동 현황을 시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345건)→1분기(191건)→3분기(164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2022년, 한 해 동안 문학에서 열리거나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은 129건이었으며 문학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혼합(51건)→시(34건)→소설(18건)→수필(15건)→아동문학(11건) 순으로 진행되었고, 전체 활동의 약 92%에 이르는 119건의 활동이 행사로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33건이었고, 지역의 문화원을 비롯하여 독립서점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부문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시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2년에 문학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과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을 합하면 798건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학의 전문예술, 생활예술과 문화예술교육 부문을 통합하여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던 2021년의 문학의 전체 현황과 2022년,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 진행된 활동을 합친 활동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2년에는 전년보다 1.5배의 활동이 늘어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년, 문학에서 진행된 활동의 경우, 출판이 전체 활동의 86%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던 데 비해 2023년에는 출판 외에도 교육과 행사, 전시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어 전체 활동의 48% 정도가 출판 이외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은 문학 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출판을 포함하여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통한 700건이었음
- 문학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출판(553건)→행사(138건)→전시(9건) 순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 부문에서 출판을 제외한 147건의 행사와 전시 활동 중 65건의 활동이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개최되었으며 82건의 활동은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민간주체가 단독으로 주최한 활동이었음
 -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출판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활동은 138건의 활동이 진행된 행사 활동이었으며 행사 활동은 축제, 강연과 북콘서트, 낭독회와 낭송회, 공모 등을 통하여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행사 활동 중 44건이 공공주체에 의하여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으며 94건이 민간과 공공의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민간주체가 주도하여 개최하거나 진행한 행사였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행사, 전시 등의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된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

분기(80건)→1분기(45건)→3분기(22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행사, 전시, 공연 등의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개최된 현황을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65건)→서구(38건)→동구(25건)→유성구(10건)→대덕구(9건) 순으로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전체 출판 활동을 통해 새로운 558건의 창작 작품이 발간되었으며 시에서 가장 많은 출판 활동이 진행되었음

-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전 지역에서 발간된 문학 관련 도서는 558건이었으며 지역의 문학 관련 작가들과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의하여 진행된 출판 활동이 문학의 전체 활동 중 58%를 차지하였음

- 문학에서 진행된 전체 출판 활동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영역은 시였으며 전체 출판 활동의 약 69%에 이르는 활동이 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558건의 출판 활동은 대전 지역에 소재한 약 26개의 출판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대전 지역의 출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출판 활동을 보여준 출판사는 <오늘의문학사>이었으며 <이든북>, <시음사(사랑음악사랑)>, <문경출판사>, <지혜,애지>, <시아북>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음

- 희곡·시나리오 분야에서는 1건의 출판 활동도 없었으며 단지 행사 등의 활동만이 진행되었음

- 문학의 전체 출판 활동을 활동유형 내지는 출판 형태로 나눠 살펴보면, 단행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예지가 차지하였으며 전자책 출판 활동은 2021년에 비해 크게 줄어 7건의 도서만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음

- 시, 소설, 아동문학 등의 전체 영역에 걸쳐 문예지 출판 활동이 진행되어 61건의 문예지가 약 30개의 문학단체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발간되었음

- 문학 분야의 전체 출판 활동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시(345건)→수필(102건)→혼합(63건)→소설(26건)→아동문학(2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의 전체 출판 활동을 도서가 발간된 분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2분기(270건)→3분기(146건)→1분기(142건) 순으로 출판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학의 전체 출판 활동을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동구(409건)→중구(111건)→대덕구(15건)→서구(8건)→유성구(6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상이 9건 있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문학에서 진행된 전체 출판 활동 가운데 2022년에만 진행된 출판 활동만 떼어내어 2021년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2022년에는 2021년의 435건보다 19건이 줄어든 416건의 출판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29건이었으며 혼합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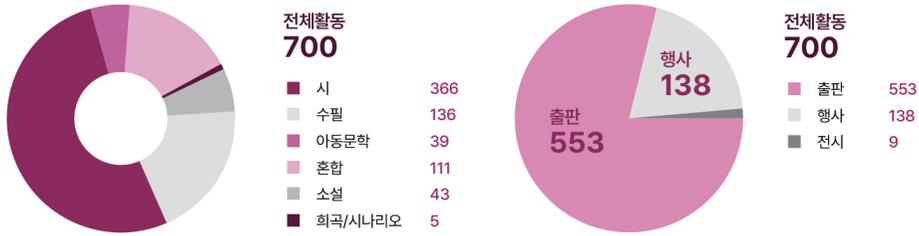
- 문학에서 진행된 생활예술의 전체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혼합(51건)→시(34건)→소설(18건)→수필(15건)→아동문학(11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희곡·시나리오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의 생활예술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개최지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전체 활동을 나눠 살펴보면, 중구(35건)→유성구(29건)→서구(28건)→동구(20건)→대덕구(16건) 순으로 집계되었고, 미상이 1건 있었음
 - 문학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에 43건, 하반기에 86건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문학의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행사(119건)→출판(5건)→전시(3건)→공연(2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체 활동의 92%를 차지한 행사 활동은 독서 및 글쓰기 모임(46건)→경연과 공모(39건)→낭송 및 낭독회(18건)→기념식(8건)→축제(5건) 등의 순으로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독서모임과 글쓰기모임 등 같은 생활예술 활동이 <다다르다>, <마르타의 서재>, <버들서점> 등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음
 - <하루 15분 우리아이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챌린지>와 <박용래 시인 세계-전국시낭송대회> 등과 같은 경연과 시낭송 행사들이 민간주체와 독립서점, 생활예술 단체에 의하여 주최되거나 개최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음
 -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출판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대전사회복지사 19명이 저술한 <아무튼, 사회복지사, 충분히 괜찮은 사람, 사회복지사>가 전자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음
 - 문학 분야의 생활예술 단체인 <대청시낭송협회>가 시낭송을 시극으로 재연한 공연, <사랑 그 끝없는 길>을 개최하기도 하였음
 - 문학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전체 활동 중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개최한 활동은 51건이었으며 민간주체에 의해 진행된 활동은 78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가장 많이 주최한 공공주체 내지는 기관은 <대전점자도서관>,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등이었음
- ◎ 문학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동문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된 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33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문학 분야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경우, 아동문학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학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아동문학(60건)→혼합(28건)→시(26건)→수필(11건)→소설(8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예술 부문과 마찬가지로 희곡·시나리오에서는 1건의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음
 - 문학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95%를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차지하는 가운데 6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대전지족중학교>와 <대전학생교육문화원대전학생교육문화원>, <독립서점 삼요소> 등에서 열렸음
 - 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복합형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분야와 달리 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에서는 비대면 진행 방식의 활동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으며 <그림책작가와와의 만남 : 이용나>,

<1인 그림책 출판사 릴레이 강연> 등과 같이 북콘서트를 겸한 강의형 활동이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문학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과 마찬가지로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책방정류장>, <버들서점>, <마르타의 서재>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거나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룸갤러리>, <청년병커>, <대전북포럼> 등에서도 열리거나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음
-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한밭도서관>, <한밭문화예술교육원> 등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가운데 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가장 활발히 주최하거나 진행한 곳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대전문화재단>, <한밭도서관>, <유성도서관> 등이었음
- 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개최지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성구(39건)→서구(31건)→중구(29건)→동구(20건)→대덕구(13건)→미상(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진행된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2022년 상반기에 62건, 하반기에 71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표 40>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41>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42>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43> 2022~2023년 대전 지역 문학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44>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45>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46>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47>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48>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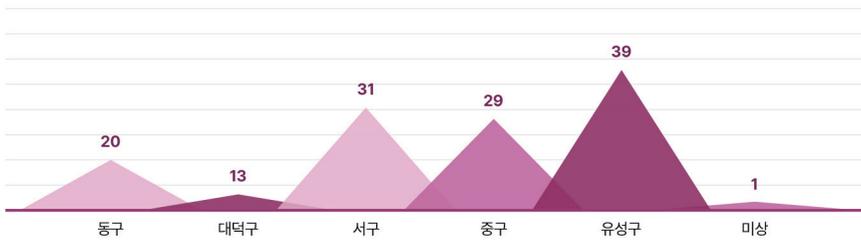


<표 49>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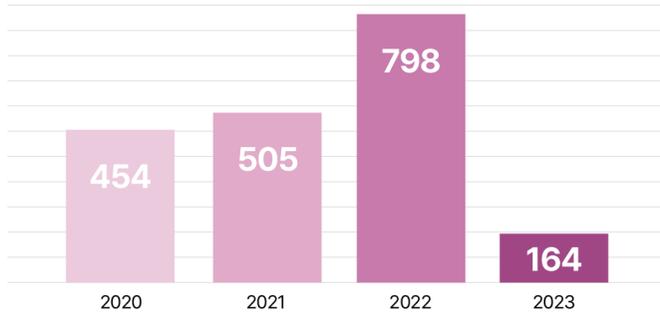
<표 50>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51> 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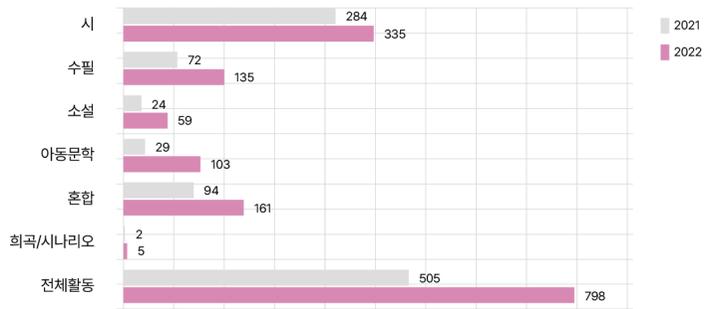


<표 52> 2020~2023년 대전 지역 문학 활동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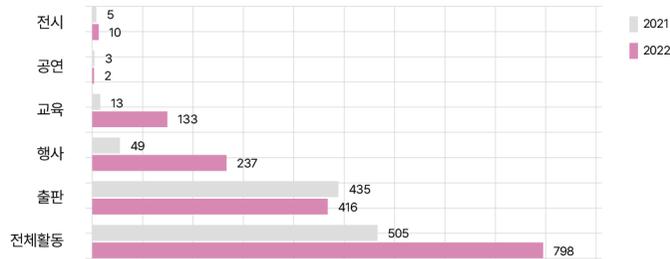


* 2023년도는 전체 활동 중 전문예술 부문만 집계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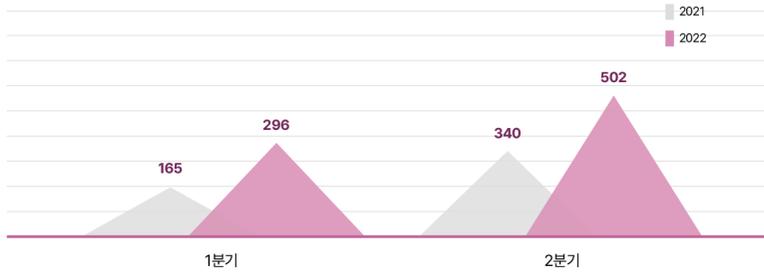
<표 53>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54>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55>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56> 2021~2022년 대전 지역 문학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1) 소설

◎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에서는 43건의 활동이 출판을 통한 작품 발표 활동과 행사를 통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에 출판된 소설 관련 도서는 26건이었음
- 이 가운데 새로 창작되어 출판을 통해 발표된 소설은 23건이었으며 <대전소설가협회>에서 소설 관련 문예지를 3건 발간하였음
-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창작 발표를 통한 출판은 <오늘의문학사>, <시시울>, <다래헌> 등과 같은 대전 지

역의 출판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 중 <오늘의문학사>가 가장 많은 8건의 소설을 출판하였음

- 이광희, 오소림, 김도희 등이 새로 창작한 소설을 <오늘의문학사>을 통해 발표하는 가운데 이광희와 최성배는 2022년, <오늘의문학사>를 통해 2건의 소설을 발간하였음
- 이외에도 북콘서트, 낭독회, 기념식 등을 통한 17건의 행사가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행사는 북콘서트였으며 15건의 북콘서트가 <대전NGO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독립서점 <다다르다>와 <삼요소>, <바베트의 만찬>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황보름, 정보라, 이정수 등과 같은 작가가 북콘서트 행사에 참여하였음
- 행사는 대전 지역 내의 독립서점을 비롯하여 <미륵 갤러리>, <강스튜디오> 등과 같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주최한 경우가 10건이었으며 7건은 <대전예술의전당>과 <한밭도서관>, <대전문학관>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고 개최하였음
-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출판이 이뤄진 시점과 행사가 열린 시점을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2분기(23건)→1분기와 3분기(각각 10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소설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출판사와 행사 개최 장소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동구(23건)→중구(12건)→서구와 유성구(각각 3건)→대덕구(1건)→미상(1건) 순으로 나타났음

◎ 소설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8건의 활동이 소설 분야에서 있었으며 모두 행사 활동이었음

- 118건의 행사 활동 가운데 독서모임이 17건이었고 1건만이 공모 행사로 진행되었음
- 1건의 공모 행사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최 아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 행사를 벌인 <대한민국 과학 소재 장르문학 단편소설 공모전>이었음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이 전국 각지의 독립서점과 연계하여 미출간 중인 도서들을 사전 독서하는 가제본사전독서 모임, <SSA(Story Security Agency)>가 대전의 독립서점, <다다르다> 등을 통해 네 차례 개최하였으며 한 차례는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나머지는 모두 <다다르다>, <바베트의 만찬>, <버들서점>, <마르타의 서재> 등과 같은 지역의 독립서점이 주최하여 진행한 독서모임이었음
- 지역의 독립서점들에서 진행한 독서모임은 대부분이 1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독립서점이 진행한 활동 중 가장 많은 소설의 독서모임을 개최한 독립서점은 서구에 위치한 <바베트의 만찬>으로 8건의 활동을 개최하였음
- 17건의 독서모임 중 9건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고 8건이 하반기에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 소설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8건이었으며 모든 활동이 강의형활동과 복합형활동을 통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되었음
 - 소설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모두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교육 활동이었음
 - 가장 많은 3건의 활동이 진행된 <한밭도서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속 인간>와 <카프카와 이방인> 등과 같은 서양 문학과 관련된 교육 활동이 열렸으며 모두 강의형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소설창작반>이 <대전문학관>에서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한밭대학교>에서 <김호연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의 삶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특별 강연하는 교육 활동을 겸한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 소설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는 2건이 열린 데 비해 하반기에 6건이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복합형활동보다 강의형활동이 더 많았음

2) 수필

- ◎ 수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에서는 소설 다음으로 많은 136건의 활동이 출판과 행사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창작된 수필은 101건이었으며 단행본과 전자책, 문예지의 발간을 통해 출판되었으며 이를 활동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단행본(94건)→전자책(4건)→문예지(3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예지는 <대전수필문학회> 등에 의해 발간되었고, 4건의 전자책 중 2건은 전자책만으로 출판된 데 비해 염규식의 <끝나지 않은 인생길>과 엄계옥의 <문해동화, 다시 찾은 나의 반쪽>은 전자책과 단행본으로 모두 발간되었음
 - 전문예술 부문의 수필은 <시아북>, <문경출판사>, <이든북>, <오늘의문학사> 등을 통하여 발간되었는데, <이든북>에서 21건, <오늘의문학사>에서 20건이 출판되었음
 - 고영덕, 박종국, 최금생이 <오늘의문학사>와 <상지출판사>에서 2건씩의 수필을 발간하였음
 - 전문예술 부문의 행사 활동은 35건 있었으며, 이 중 북콘서트가 가장 많은 34건이 열렸으며 1건의 축제가 개최되었음
 - 박성창, 배경화, 오세원, 박지현, 김겨울, 하재영, 권사랑 등의 작가들이 <대전북포럼>과 <대전청년내일센터>, <한밭도서관> 등과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들이 주최한 북콘서트 행사에 참가하였음
 - <(사)한국수필가협회>가 주최한 <2022 한국수필문학축제>가 2022년 6월, 유성구의 <계룡스파텔>에서 열려 심포지엄, 시상식, 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이틀간 진행하였음
 - 전문예술 부문의 행사 활동은 25건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북포럼>, <다다르다> 등의 민간주체가 주

최하여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열렸으며 공공주체에 의하여 주최된 행사는 10건이었고, 대부분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수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2분기(71건)→1분기(38건)→3분기(27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수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출판사와 행사 개최장소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동구(82건)→중구(38건)→서구(8건)→유성구(5건)→대덕구(1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건은 미상이었음

◎ 수필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5건이었으며 행사와 전시, 출판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16건의 활동이 있었던 수필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글쓰기모임과 독서모임 외에도 5건의 경연과 전자책 출판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진행되었음

- 각각 5건의 글쓰기 모임과 독서 모임을 지역의 독립서점, <버들서점>, <마르타의 서재>, <버들서점> 등이 주최하여 대면과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개최하였음

- <광복회유성대덕연합지회>가 유성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비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개최하였음

-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전사회복지사 19명이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창작한 <아무튼, 사회복지사 "충분히 괜찮은 사람, 사회복지사">가 전자책으로 출간되었고, 이 책의 출판기념회와 연계해서 전안나의 북콘서트가 개최되었음

- 수필의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신체로 나타나는 불편함 등 몸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들을 전시한 <문화다양성 확산사업-다르고 다양한 우리의 몸 수기공모 결과보고전>이 <대전광역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전문화재단> 등에 의해 주최, 주관되어 <테미오래>에서 개최되었음

- 수필 분야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 중 공공주체가 주최한 활동은 <2022 문화다양성 확산사업-다르고 다양한 우리의 몸 수기공모 결과보고전> 뿐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활동은 민간주체가 주최하고,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필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곳은 유성구에서였으며 3건의 활동이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수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11건 진행되었으며 11건의 활동 가운데 7건이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는 활동이었음

- 수필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7건을 주최한 데 비해 4건만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개최되었음

- 4건의 글쓰기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주최 아래, 대덕구에 자리한 독립서점, <책방정류장>에서 열렸음

- <김희정 시인과 함께하는 미룸 문학 강좌 : 생활글쓰기>가 <미룸갤러리>에서 2022년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장기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였음

- <수필창작반>이 <대전문학관>에서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1인 그림책 출판사 릴레이 강연>이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주최 아래,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열렸음
- 11건의 활동 중 8건이 복합형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에 8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3) 시

- ◎ 문학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는 시였으며 창작 발표를 위한 출판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전시와 공연, 북콘서트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시의 전문예술 부문을 통해 진행된 전체 활동의 48%에 해당하는 366건의 활동이 시 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활동은 출판이었음
 - 시에서는 창작 발표를 위한 출판이 전체 활동의 93%를 차지하는 345건이 진행되었음
 - 시의 출판은 단행본, 전자책, 문예지 발간으로 진행되어 가장 많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가운데 문예지 11건과 2건의 전자책이 발간되었음
 - 조선시대 후기, 유석모의 시집을 연구한 <유연고-달빛아래 연경에서 노닐며>와 시에 관한 이론이나 비평은 물론, 시와 관련된 주변 이야기까지를 담은 <조선간본 승암시화>를 국문으로 완역한 <승암시화>가 <도서출판 문진>에서 전자책으로 출판되었음
 - <애지>, <시와 정신>, <시와 경계> 등과 같은 시 전문 문예지와 <동시대문학동인회>의 <동시대>, <대전토방시회>의 <토방시조> 등의 동인지가 출판되었음
 - 329건의 단행본 가운데 <오늘의문학사>를 통해 출판된 단행본이 57건, <시음사(시사랑음악사랑)>이 출판한 단행본이 54건, <이든북>에서 출판된 단행본이 58건이었으며 이 3곳의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는 단행본이 시 관련 전체 단행본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었음
 - 황인철, 송근주, 박진용, 박진표, 한정찬, 이장희, 최이천 등은 각각 2건씩의 단행본을 출간하였음
 - 출판 이외에도 시의 전문예술 부문에서는 전시와 북콘서트, 낭송회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시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출판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북콘서트였음
 - <대전포럼>이 주최한 <시인과의 만남>과 <한남문학 여름콘서트>, <대전문학관의 문학 콘서트> 등을 통해 21건의 시 분야 관련 북콘서트가 <대전문학관>, <청년벙커>, <대전 동구문화원>, <대전북포럼>,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 등에서 개최되었음
 - 시 관련 북콘서트는 공공주체와 기관보다는 주로 <대전북포럼>과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 등과 같은 민간주체가 주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 북콘서트 가운데 <대전포럼>은 이근석, 강안나, 안현섭, 박소영 등과 같은 작가를 초

대하는 13건의 행사를 주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외에도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전시, <시확산 시민운동 아카이빙전 '詩-앗, 싹트다'>이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 해 진행되었으며 <대전시낭송인협회>가 주최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시콘서트>가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개최되었음
- 시를 통해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현황을 출판물 포함하여 전시와 공연, 행사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2분기(167건)→1분기(108건)→3분기(9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시를 통해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출판사와 행사장소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동구(251건)→중구(73건)→서구(18건)→대덕구(16건)→유성구(6건)→미상(2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34건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시에서 있었으며 29건의 행사 활동 외에도 출판과 공연 활동이 있었음

- 시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통해 3건의 출판 활동이 진행되어 <제37회 전국한밭시조백일장 수상작품집>인 <반짝이는 별, 어머니>가 발간되었고, 공주의 <북중학교> 학생들이 창작한 시들로 엮은 <날아라 솜털우산>가 대전 지역의 출판사인 <심지>에서 출판되었음
- 2건의 공연이 시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으로 열려 <대전시낭송협회>가 첫 번째 정기공연으로 주최한 <사랑 그 끝없는 길>과 <대전시낭송가협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대전중구문화원>에서 진행되었음
- 29건의 행사 활동은 낭송회를 비롯하여 경연, 공모, 기념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은 낭송회였음
- <문화그룹이어로>의 <시노래예술마당&신재창 음반 발매 기념 Sing a Poem>를 비롯하여 <자목련시낭송협회>의 <孝愛 뿌리 내리는 詩香>, <변규리시아카데미>의 <시 읽는 사람들 문학의 밤> 등 15건의 낭송회가 열렸음
- <한국낭송문학회>, <자목련시낭송협회>, <국제시낭송예술인연합회> 등의 생활예술 단체와 민간주체가 9건의 낭송회를 개최하였음
- <힐링톡톡시낭송 발표회>, <시각장애인과 함께 시의 향기를 전하는 재능기부 프로젝트>, <대덕구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밤 3인 3색 명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월애> 등이 <대전광역시>와 <대전북부여성가족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13건의 행사 활동을 주최하였음
- <대전중구유류동상점가상인회>가 <박용래 시인 세계 시낭송대회>의 첫 번째 대회와 <박용래 시인 타계 42주기 전국시낭송대회>를 개최하였고, <대덕시낭송대회 김호연재 시로 만나다>가 <대덕문화원>에서 열렸음
- 시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4건이 진행된 데 비해 하반기에 30건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구에서 13건이, 동구에서 11건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시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6건이 진행되어 21건이 복합형활동으로 열렸고, 1건은 체험형활동으로 개최되었음

- 시를 통해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경우,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16건 주최하였으며 10건

이 <미룸갤러리>와 생활예술 단체인 <대전한시협회> 등과 같은 민간주체가 주최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룸갤러리>에서는 4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한 <김희정 시인과 함께하는 미룸 문학 강좌 : 시 읽고 쓰다>가 진행되었고, <대전한시협회>에서는 <초보자 한시 작법 강의>라는 복합형활동의 문화예술을 실시하였음
- <한밭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나도 시낭송가가 될 수 있다>와 <시인의 마을>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였으며 <대전서구문화원>에서도 시 창작 교육인 <시꽃, 피다>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문학관>에서도 <시창작 입문반>과 <시창작 심화반>을 주최하여 진행하였음
- <여성가족원>과 <북부여성가족원>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한 시낭송 관련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시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서구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4) 아동문학

◎ 아동문학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출판과 행사를 통한 39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아동문학에서 가장 많은 활발하게 진행된 활동유형은 출판 활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단행본 20건이 출판되었고 2건의 문예지가 발간되었음
- <오늘의문학사>와 <이든북>, <이유출판>가 각각 4건씩 아동문학 전문예술 관련 도서를 발간하였으며 <한밭아동문학회>와 <대전아동문학회>에서 각각 1건씩의 문예지를 발간하였음
- 아동문학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에서 출판 다음으로는 행사 활동이 많았으며 안승하, 김리리, 김준영, 홍민정, 엄혜숙 등의 북콘서트가 16건 열렸음
- 아동문학과 관련된 행사로 <독자와 함께하는 한부모가정 돕기-애들아, 푸른 메아리랑 놀자>가 2022년 8월, <계룡문고>에서 축제 형식의 활동으로 열렸고, <대전문화재단>이 주최한 전시, <어린이 문학체험전 : 세상에 온 걸 환영해>가 <대전문학관>에서 개최되었음
- 아동문학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출판은 대부분 민간주체에 의해 진행된 데 비해 행사 대부분은 공공주체가 주최하였으며 행사 가운데 <독자와 함께하는 한부모가정 돕기-애들아, 푸른 메아리랑 놀자>와 <대전북포럼>에서 주최한 <그림책으로 나 읽기 : 신혜은>만이 민간주체에 의하여 개최되었음
- 아동문학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2분기(22건)→1분기(10건)→3분기(7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문학 전문예술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도서가 발간된 출판사와 행사 개최지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동구(24건)→중구(10건)→서구와 유성구(각각 2건)→대덕구(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 아동문학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1건이었으며 9건의 행사와 2건의 전시 활동이 진행되었음
- <세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 그림책 100선 전시회>가 <대전광역시> 주최 아래, <송촌도서관>에서 열렸으며 같은 <송촌도서관>에서 <송촌도서관 상상정원 에릭 칼 도서전>이 진행되었음
 - 9건의 행사 활동 중 가장 많이 열린 행사는 독서모임이었고, <청춘나들목>과 <성심당문화원>, 독립서점, <바베트의 만찬> 등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 독서모임을 진행하거나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경연 행사를 통해 <하루 15분 우리아이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챌린지>가 지역의 독립서점인 <마르타의 서재>의 주최 아래,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열렸으며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의 첫 대회가 <한국효문화진흥원> 주최 아래, 개최되었음
 - 또한, <대전전자도서관>이 주최한 찾아가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동화구연 프로그램 발표회>가 <대전시립산성중합복지관>에서 진행되었음
 - 아동문학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4건 진행되었으며 7건이 하반기에 열렸음
- ◎ 문학에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아동문학이었으며 아동문학에서는 60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부문 활동이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문학 관련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경우, 59건이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진행된 데 비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1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주최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은 2022년 7월에 개최한 <학교도서관 연합 독서캠프 이상한 나라의 도서관>임
 - 아동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활동은 20건이 민간주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으며 40건이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인 <마르타의 서재>를 비롯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북포럼>, <한밭도서관>, <아가랑도서관>, <대전청년내일센터> 등이 교육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독립서점, <마르타의 서재>가 가장 많은 아동문학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주최하고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활동 가운데 43건이 복합형활동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북포럼>이 개최한 <그림책작가와와의 만남 : 이윤나>와 <인문학 그림책 교실 -잇혀지는 투박함과 순수함 : 박범진>을 비롯하여 용운도서관의 <온라인으로 만나는 전은주 저자 강연회 그림책 육아>, 송촌도서관의 <박연철 작가 특강 : 외계인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등 같은 강의형활동이 16건 있었으며 체험형활동도 <마르타의 서재>에서 1건 열렸음
 - <온라인으로 만나는 전은주 저자 강연회 그림책 육아>, <허정윤 작가 허정윤 작가와 함께하는 코딱지 코지의 모험> 같은 북콘서트 또는 북토크 형식을 겸한 4건의 복합형활동과 3건의 강의형활동이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아동문학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거나 열린 자치구는 유성구이었고, 2022년 상반기에 29건이 진행되었으며 31건이 하반기에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5) 혼합

- ◎ 소설, 시, 수필, 아동문학 등의 분야가 서로 연계하여 활동한 혼합에서는 출판을 비롯하여 전시, 행사 등을 통한 111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혼합의 전체 활동을 활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출판(62건)→행사(43건)→전시(6건) 순으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혼합에서 진행된 창작 발표를 위한 출판 활동은 문예지 발간 활동이 42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단행본 출판이었음
 - 혼합에서는 <(사)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발간하는 <대전문학>과 <대전충문인협회>의 <한국문학시대> 외에도 <문학사랑>, <작가마당>, <대일문학>, <대전PEN문학> 등과 같은 문예지들이 출판되었고 <이음문학>이 창간호를 출판하였음
 - 혼합에서는 출판 활동 외에도 북콘서트와 포럼, 기념식, 축제, 공모 등의 행사가 43건 열렸으며 혼합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북콘서트(14건)→기념식과 축제(각각 9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혼합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의 경우, 16건이 공공주체에 의하여 주최되어 진행되었으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주최한 1건의 활동을 포함하여 민간주체가 주최한 행사는 23건이었음
 - 또한, 혼합에서는 <2022 대전문학관 개관 10주년 특별전시 : 2012~2022 10년, 한-쪽>과 <독립서점 소개전 책과 사람 : 다정함의 깊이>, <우리글 한글 : 즐기자! 한글>과 같은 6건의 전시 활동이 있었으며 6건 모두 <대전문화재단>, <한밭도서관> 같은 공공기관과 시설이 주최하여 열었음
 - 혼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현황을 출판에 포함하여 전시와 행사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2분기(55건)→1분기(29건)→3분기(27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출판을 제외한 전문예술 부문의 행사와 전시 활동을 전시와 행사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25건)→1분기와 3분기(각각 12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출판사와 행사장소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동구(50건)→중구(40건)→서구(12건)→대덕구(6건)→미상(3건) 순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유성구에서는 1건의 활동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음
- ◎ 혼합에서는 51건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생활예술 부문 관련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 분야의 생활예술 활동은 50건의 행사 활동과 1건의 출판 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1건의 출판은 <오늘의문학사>에서 진행한 <금강문학상 수상작품집>이었음
 - 이외의 모든 활동은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독서모임과 글쓰기모임을 비롯하여 전시, 낭독회, 공모와 경연대회 등을

통한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이 중 공모와 경연을 합한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어 13건의 공모와 10건의 경연대회가 열렸음
- 공모 활동 13건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슬로건 공모>를 비롯하여 <대전점자도서관>의 <문학집 울록볼록이야기 글 공모>,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1인1책 나만의 책쓰기 공모 > 등 10건의 활동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주최하였음
- <대전시교육청>이 주최한 <함께 읽는 테마독서대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의 <대전교사노동조합 독서감상문 대회-다함께 책으로 통해요>를 비롯하여 <도전! 유성구 독서 골든벨>, <동구8경 독서마라톤대회> 등과 같은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동구8경 독서마라톤대회>은 무려 244일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음
- 5건의 축제가 행사 활동으로 진행되어 <대전광역시>가 <대전 시민 책잔치 한마당>등을 주최하였음
-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 11곳과 2곳의 도서관에서 혼합 분야의 독서모임과 글쓰기모임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독립서점에서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4건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 혼합 분야의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18건 열린 데 비해 하반기에 33건이 열리거나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중구에서 가장 많은 13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8건이었으며 복합형활동 19건과 9건의 강의형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혼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28건 가운데 24건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였으며 민간주체가 주최한 활동은 4건 있었음
- 혼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가운데 23건은 사회문화예술 활동으로 열렸고 5건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최한 주체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 <대전만년고등학교> 같은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주체라 할 수 있는 <지족중학교 학부모회 독서모임>이었음
- <지족중학교 학부모회 독서모임>은 <지족중학교>에서 <작은 책방이 전하는 느슨한 연대, 더불어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최하여 진행하였음
- <유성도서관>이 주최한 <다같이 우리동네 책방 놀러 가자-지역서점 탐방>에 <프레드릭 희망의 씨앗>, <버들서점>, <우분투북스>, <텍스트 가든> 등과 같은 독립서점 8곳이 참여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혼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자치구는 유성구이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 13건이 열렸고, 하반기에 15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6) 희곡·시나리오

- ◎ 희곡·시나리오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활동은 창작을 통한 출판 활동은 1건도 없었으며 모두 공연과 행사를 통한 활동이었음
 - 희곡·시나리오에서는 생활예술과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희곡·시나리오에서는 5건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만이 진행되었으며 4건의 행사와 1건의 공연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대전 지역의 희곡 작가를 발굴하는 <대전 창작 희곡 공모>가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창작 희곡을 공개 모집하였고, 수상작 시상식을 겸한 <대전 창작 희곡 공모 수상작 리딩 시어터> 공연이 개최되었음
 - <희망의책 대전본부>가 주관한 희곡과 시나리오 관련 북콘서트 행사가 3건 있었음

2-2. 공연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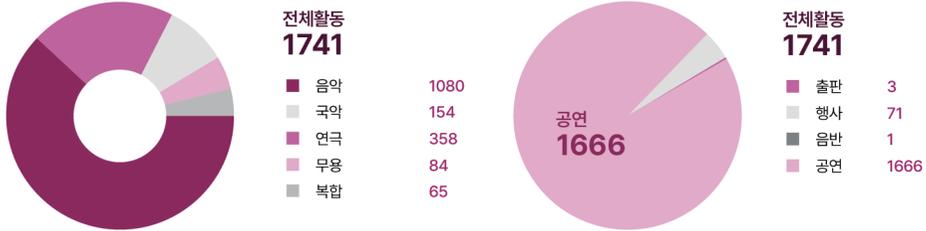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진행된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은 2,245건이었음
 - 공연예술에서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전체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음악(1,322건)→연극(377건)→무용(224건)→국악(187건)→복합(135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는 음악이었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활동은 공연이었으며, 전 분야에서 1,768건의 공연이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1,741건의 활동이 전문예술 부문의 공연예술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음악(1,080건)→연극(358건)→국악(154건)→무용(84건)→복합(65건)순으로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832건)→1분기(459건)→3분기(450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2022년, 한 해 동안 공연예술에서 열리거나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은 167건이었으며 활동은 음악(91건)→복합(42건)→무용과 국악(각각 13건)→연극(8건) 순으로 진행되었고, 102건의 활동이 진행된 공연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음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는 337건의 활동이 있었고, 지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부문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음악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거나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2년에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활동의 43%를 조금 웃도는 973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으며 1,233건이 민간주체, 39건이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가 공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생활예술과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통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던 2021년의 전체 활동과 현황과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활동을 합친 2022년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7배가 늘어난 1,420건의 활동이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1,741건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음악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음
-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의 62%에 이르는 1,080건의 활동이 음악의 성악과 기악 등의 공연을 비롯하여 축제와 경연 등이 벌어진 행사, 출판과 음반 발매 등을 통하여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전체 활동의 약 63%에 이르는 1,097건의 활동을 민간주체가 단독으로 주최하거나 개최하였고, 607건의 활동이 공공주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으며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활동은 37건이었음
 - 공연예술 활동을 주최한 공공기관이나 시설로서는 <대전광역시>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가 약 200건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민천문대>에서 활발한 활동과 행사가 개최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민간주체의 경우, <아트브릿지>, <아신컴퍼니>, <골프존문화재단> 등이 활발하게 공연예술을 주최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장 형태의 공연장을 겸해 운영되는 재즈클럽, <엘로우 택시>에서는 재즈 공연이 약 50여 건이 진행되기도 하였고, <충남일보>의 경우,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공연예술 전문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15여 건의 활동을 주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경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열린 경우는 464건이었으며 전체 활동의 약 73%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진행되거나 열렸음
 -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집>과 <대전평생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공연예술 활동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아트브릿지>와 <골프존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엘로우 택시> 등에서 활발하게 공연예술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공연예술 전문예술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서구(922건)→유성구(367건)→중구(332건)→동구(65건)→대덕구(55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 중 공연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음악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공연은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의 95%를 차지하는 1,666건이 진행되었음

- 기악공연, 성악공연, 극 공연, 인형극, 한국무용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에서 펼쳐졌고, 이 가운데 기악공연이 가장 많은 670건의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혼합공연이 224건 있었음
 - 이뿐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의 활동과 비교해보면, 대중음악공연과 뮤지컬공연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중음악과 뮤지컬공연 또한 각각 145건과 163건씩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특히 코로나 19 이후, 대부분의 공연이 비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진행된 것과 달리 공연장을 통한 뮤지컬공연이 크게 늘어나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관저문화회관>, <한밭대학교>와 <우송대학교> 등의 공연장에서 많이 개최되었음
 - 대중음악공연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지방 순회공연이 중단되었던 대형 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중가수와 인디가수 등의 공연이 <디켄센터>를 비롯하여 <엘로우 텍스>, <문화공감 철>, <더 뮤지션> 같은 소극장 형태의 공연장에서 활발히 펼쳐졌음
 - 공연 활동 다음으로 많은 활동을 보여준 행사에서는 2022년 10월에 개최되었던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전후하여 <대전 재즈 페스티벌>를 비롯하여 <UCLG 특별공연 대한민국 대표 팝 밴드 이날치 초청 공연>, <UCLG 특별공연 월드뮤직그룹 공명 초청 공연> 등이 개최되었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음악에서 공연예술과 관련된 연구 서적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5건 발간되었을 뿐 아니라 대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젊은 국악단 흥.신.소>와 그 외의 대중음악 가수들이 음반을 출시하는 활동을 보여준 점이라 할 수 있겠음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공연은 공공주체보다는 민간주체에 의하여 주최되어 열리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주최되거나 주관되는 경우 외에도 지역 외의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도 많았음
-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 역시 전문예술 부문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 가장 많은 활동 진행되었음
- 공연예술의 전체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개최지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구(59건)→서구(45건)→유성구(39건)→대덕구(16건)→동구(8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에 39건, 하반기에 128건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을 점검해보면, 공연이 전체 활동의 61%를 조금 웃도는 102건 열렸음
 -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음악의 경우, <아넬로 클라리넷앙상블>, <코리안색소폰오케스트라>,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기악 관련 생활예술 단체가 정기연주회 내지는 정기공연을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음
 - 전체 공연 중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주최한 활동은 58건이었으며 민간주체에 의해 추진된 활동은 108건, 1건이 공공주체와 민간주체 공동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가장 많이 주최한 공공주체 내지는 기관은 <대전시민천문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이었음

- 공연 다음으로는 축제가 많았으며 <대청호 벚꽃축제 전국 트로트 가요제>, <전국기타동아리 대축제>, <중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와락> 등 같은 축제가 공연예술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통해 열렸음
 - 이외에도 <대전시민무용축전>, <시민 예술 한마당 고고장구 페스티벌>, <오량 문화예술 페스티벌> 등과 같은 축제가 무용과 국악, 혼합 등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개최되었고, <아마추어 발걸을 위한 스탠드업 코미디대회>, <대청호 벚꽃축제 전국 K-POP 댄스 경연대회> 등과 같은 경연대회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생활예술 부문 활동의 축제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거나 열린 분야는 복합이었으며 이 분야에서 29건의 축제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337건이었으며 이 중 151건이 음악에서 진행되어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음악에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경우, 무용에서 눈에 띄게 많은 활동이 진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음악(151건)→무용(127건)→복합(28건)→국악(20건)→연극(1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진행된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2022년 상반기에 123건, 하반기에 214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활동 기간은 평균 16일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개최지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구(111건)→유성구(84건)→중구(81건)→동구(39건)→대덕구(22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유성평생학습관>, <대전중구문화원> 등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과 지역의 문화원들에서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이 진행된 곳은 <유성구평생학습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대전예술가의집>, <전통나래전수관> 등과 같은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활발히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되었고, <작은극장 다함>, <노이에클랑>, <아트브릿지> 등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들도 공연예술의 문화예술 부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
 - 민간주체가 주최한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8건이었던 데 비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주최한 활동은 309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대전문화재단>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최한 <BTS (Beat To Story)> 등이 개최되었고, <대전시교육청>이 일반고 예술교육활성화프로그램으로 주최한 <2nd Groove & Improve Concer> 등과 같은 활동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음
 -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대부분은 제작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체험형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론 학습으로 진행되는 강의형활동과 이론과 제작 학습이 병행되는 복합형활동도 많지는 않았으나, 복합형활동 3건, 강의형활동이 7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57>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58>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59>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60> 2022~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61>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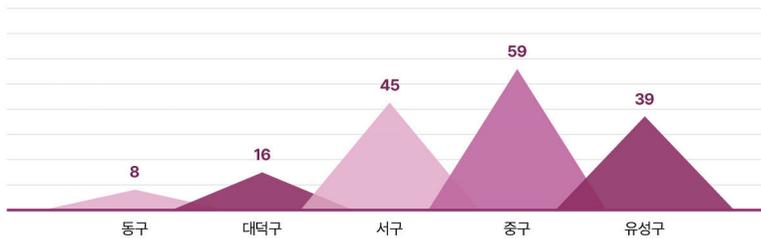


<표 62>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63>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64>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65>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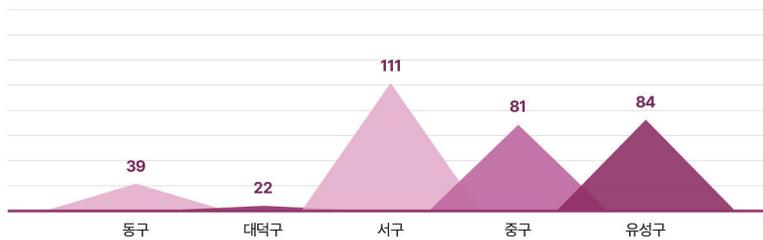


<표 66>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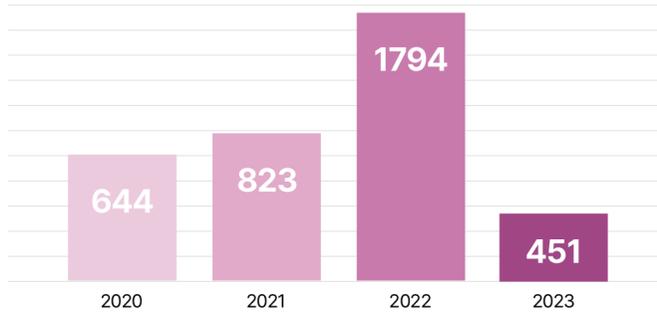
<표 67>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68> 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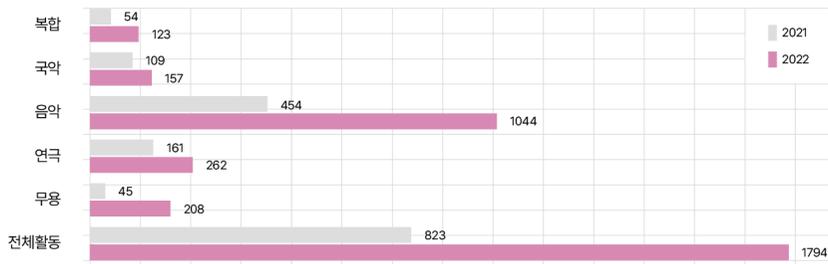


<표 69> 2020~2023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전체 활동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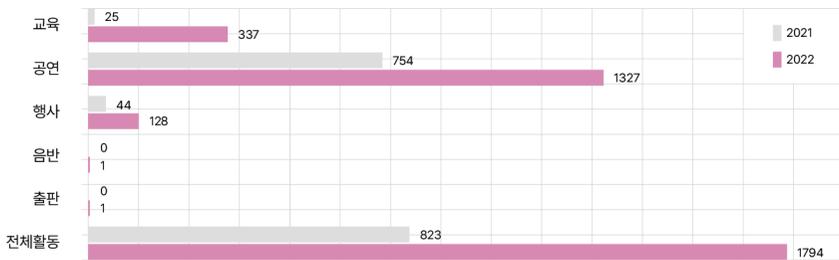


* 2023년도는 전체 활동 중 전문예술 부문만 집계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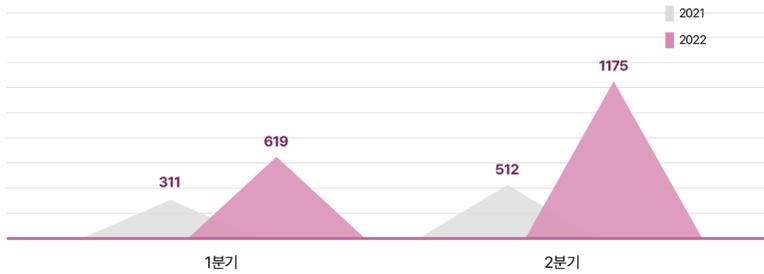
<표 70>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1>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2>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73> 2021~2022년 대전 지역 공연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1) 국악

◎ 순수 국악과 퓨전 국악 등의 성악과 기악, 혼합 공연이 진행된 국악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154건이 진행되었으며 <젊은 국악단 흥.신.소>가 국악 작곡 공모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기악, 성악, 혼합 등의 공연과 축제 활동이 진행된 국악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기악공연이었으며 국악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약 43%에 이르는 66건의 기악 공연이 개최되었음

- 다음으로는 성악공연이 34건 진행되었으며 <동물 탈놀이, 만보와 별별놀이>, <국악뮤지컬 세 도깨비> 등처럼 연

희극과 마당극, 악극 등의 형태로 진행된 극 공연도 7건 있었음

- <단오 국악 한마당>과 전국의 청년 국악인들이 모여 진행한 <청춘국악시리즈 판&판> 같은 축제 형식의 국악 행사가 5건 열리기도 하였음
 -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주최하고 주관한 <월간 상설공연>이 2022년 3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국악 공연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대전문화재단>이 대전 지역의 명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연 활동을 선보이고자 기획한 <대전문화재단 지역 명소 상설공연-별별 콘서트>에 <마당극패 우금치>, <타악그룹 판타지>, <에이도스> 등과 같은 국악 단체가 참가하기도 하였음
 - <대전시립박물관>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으로 구성된 <어스름 녀 우리가락>이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박물관 음악회의 첫 공연으로 열렸음
 - 2023년 6월, 단오를 즈음하여 대전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옷다리농악, 들말두레소리와 제주도의 민요와 농요 등이 함께 어우러져 펼쳐진 지역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이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대전문화재단>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3 공연유통 협력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판소리극 공연, <콜비츠와의 대화>가 2023년 6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공개되었음
 - 국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 중 민간주체나 단체가 주최하거나 연 경우는 62건이었고,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가 함께 주최한 활동은 10건이었으며 82건이 공공주체에 의한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거나 개최한 활동이었음
 - 국악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공연 장소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었으며 국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대전예술가의집>,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평생학습관> 등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활발히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림공원>, <대청댐 호수 일대>, <보문산 야외음악당> 등과 같은 야외 공원이나 시설 등을 이용해 진행한 활동도 13건이나 있었음
 - 국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91건)→1분기(33건)→3분기(30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73건)→중구(49건)→대덕구(15건)→유성구(12건)→동구(5건) 순으로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 국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3건이었으며 행사와 공연 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7건의 기악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6건의 행사가 공모와 경연을 비롯하여 축제로 진행되었음
 - 7건의 공연 중 5건이 생활예술 단체인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청아울>, <금타는 사람들>, <소리샘풍물단> 등의 정기연주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음
 - <유성문화원>에서 유성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을 공개 모집하여 진행한 <유성문화원 온천수 착정놀이팀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정식>이 열리기도 하였음

- 국악에서는 생활예술 축제가 2건 열렸으며 대전 지역의 생활예술 단체인 <아리랑고고장구대전지회>가 주최한 <시민 예술 한마당 고고장구 페스티벌>이 <한밭문화예술교육원>에서 개최되었고, <대전광역시>가 주최한 <대통령상 한밭 국악 전국대회>가 <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진행되었음

- 국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살펴보면, 공공주체에 의해 진행된 활동은 2건이었고, 11건이 민간주체에 의하여 추진된 활동이었음

- 국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서구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악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0건이었으며 대전 지역에 소재한 문화원에서 대부분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국악 분야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대전 지역에 소재한 <대전중구문화원>을 비롯하여 <대전동구문화원>, <대덕문화원> 등에서 주로 열렸으며 이외에도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과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판소리, 민요 등과 같이 성악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보다는 가야금, 가락장구, 풍물과 사물놀이 등 기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더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2) 무용

◎ 무용에서는 한국무용, 서양무용과 관련된 공연과 행사를 통한 84건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으며 공연과 축제, 공모, 북 콘서트 등의 행사를 통해 진행되었음

- 무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공연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11건의 행사와 73건의 공연이 진행되거나 열렸음

- 73건이 진행된 공연 활동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공연이 가장 많은 40건이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서양무용 공연이 21건 열렸으며 무용극 7건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무용의 공연 활동을 가장 많이 주최한 기관은 <대전광역시>였으며 대전광역시 산하의 대전시립무용단은 19건의 공연을 펼쳐 보여주었음

- 이외에도 <이정애 무용단>을 비롯하여 <무용단 뉘스>, <춤사랑 무애>와 같은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는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30건의 공연이 민간주체 또는 단체에 의하여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 지역의 무용 단체나 기관에 의하여 진행된 공연 외에도 <국립발레단>의 <해적>과 <국립무용단 새날>,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아크랑 칸 컴퍼니>의 <정글북 : 또 다른 세계>와 같은 무용공연이 펼쳐졌으며 <리틀앤젤스 예술단>의 무용공연, <UCLG대전 D-100 성공 개최 기원>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무용에서 진행된 행사는 축제와 토크콘서트, 공모 등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대전무용제>, <한 여름밤 댄스 페스티벌>, <대전국제안무가전> 등과 같은 축제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8건 열렸음
 - 무용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많이 열린 행사 장소로는 <대전예술의전당>이었으며 이곳에서 19건이 개최되었고, 다음으로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집> 등이었음
 - 무용의 전문예술 단체나 기관들은 2020년과 2021년과 달리 실내 공연장 외에도 대흥동 <우리들공원>을 비롯하여 <유림공원>, <대전시립미술관 분수대 앞 광장> 등의 야외무대를 이용해서 공연 활동을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무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47건)→1분기(21건)→3분기(16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무용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42건)→중구(24건)→대덕구와 유성구(각각 7건)→동구(4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 무용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3건이었으며 행사가 가장 많이 개최되었음
- 무용의 생활예술 부문에서는 행사 10건과 3건의 공연 활동이 진행되었음
 - 무용의 생활예술 부문 공연으로는 한국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김원경 무용단>과 혼합공연 형식으로 열린 <플랫폼 무용단>의 정기공연이 있었음
 - <공연동아리 몸살>의 23번째 정기공연이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축제에는 <서구청장배 생활무용 춤 페스티벌>를 비롯하여 <대청호 벚꽃축제 전국 K-POP 댄스 경연대회>와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와 연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WE TOGETHER 댄스오마주 챌린지> 등이 있었고, 생활예술 단체인 <아라무용봉사단>이 <대전 어울림 춤 축제>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였음
 - 무용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 중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최된 활동이 3건인 데 비해 10건의 활동이 <대전중구생활무용협회>, <아라무용봉사단>, <플랫폼무용학원> 등과 같은 민간주체의 단체들이 주최하여 진행한 활동이었음
- ◎ 무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27건이었으며 한국 전통무용보다 서양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 활동이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무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주로 <서구평생학습관>, <유성구평생학습관>과 <대전중구문화원> 등과 같은 지역의 문화원에서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유성구평생학습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2건의 한국무용 교육 활동이 열렸음
 - 이런 가운데 <춤으로 만드는 세상 스트리트 대전 파인더> 등 같은 무용 교육 활동이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되어 열렸고, 장애아동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신나는 신체놀이 무용교실>이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음

- 교육적 내용으로 살펴보면,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보다는 벨리댄스, 댄스스포츠, 실용방송댄스, 스트리트댄스 등과 같이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더 많이 진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으며 현대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전체 활동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3) 복합

- ◎ 음악, 국악, 연극, 무용의 공연예술 분야에 속한 여러 분야의 전문예술 부문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한데 어우러져 진행된 복합에서는 65건의 활동이 있었으며 혼합공연이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음
 - 50건의 공연이 펼쳐진 혼합에서는 국악과 음악, 음악의 성악과 국악의 기악과 무용의 현대무용 등 서로 다른 분야가 한데 모여 진행한 혼합공연이 49건 열렸고,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 1건 진행되었음
 - <대전문화재단>이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 다양한 분야의 공연단체, 78개 팀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능정이 스카이로드>, <엑스포광장>, <국립대전술체원>, <효문화광장> 등 지역의 명소나 거리 등에서 공연을 펼쳐 보이는 <들썩들썩 인 대전>에 참여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음
 - 국악과 한국무용 단체들이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일국악>에 참여하여 7회의 공연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진행하였음
 - 공공주체가 주최한 혼합의 공연 활동 외에도 <대전서구문화원>이 2023년 대전 지역의 기업, <두드림>과 협약을 맺고 주최한 <아이클타임과 함께하는 버스킹 마치 섀넌 라이브>의 첫 공연 활동이 <마치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골프존문화재단>이 주최한 <골프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라운드>를 통해서도 혼합 공연이 펼쳐졌음
 -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아신아트컴포니>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악과 뮤지컬 공연을 결합해 제작한 극공연, <신비한 가(家)>이 2022년 연말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열렸음
 - <대전 UCLG 총회 성공 기원 음악회>를 비롯한 3건의 공연이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 연계된 공연으로 복합에서 진행되었음
 - 코로나 19로 중단된 이후,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재연하는 기념식이 재개되어 사물놀이와 마당놀이, 퓨전국악 등의 공연과 함께 개최되기도 하였음
 - 공연 활동 이외에도 혼합에서는 14건의 행사가 있었으며 이 중 12건이 공연예술의 총체적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대전舞舞.樂악연희축제>와 <대전예술제 및 6대 광역시 음악 교류전>을 비롯하여 대전 동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의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천사의손길 감사 축제>와 <아트그라운드 페스타-도시의 아이들> 등이 개최되었음
 - 공연예술 전반과 관련된 연구서가 <충남대학교출판 문화원>에서 1건 발간되었음
 - 복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민간주체보다 더 많이 주최하여 <대

전시립연정국악원>이 가장 많은 활동을 진행하거나 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민간주체의 경우, <자스무지쿠스>, <마당극패우금치>, <대전·충남가야금연주단 청흥> 등의 문화예술 단체가 복합의 활동을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골프존문화재단>이 가장 많은 4건의 활동을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복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39건)→1분기(15건)→3분기(11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알 수 있었음
- 복합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35건)→중구(13건)→유성구(9건)→동구(5건)→대덕구(3건) 순으로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복합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42건이었으며 33건의 축제가 개최되었음

- 복합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축제 외에도 공연과 공연으로 진행되었음
- 공연으로는 <대전시교육청>이 주최한 <초·중학생음악경연대회>외에도 생활예술 단체인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가 주최하고 진행한 <전국 웃다리풍물 경연대회>이 있었음
- <극단 모락>의 <댄스 갈라쇼 공연> 등과 같은 뮤지컬공연과 함께 극공연, 혼합공연 등의 활동 9건이 복합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화예술공연동아리 개똥벌레>가 극공연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문화나눔 찾아가는 예술여행>을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였음
- <대전시민무용축전>을 비롯하여 <한발벌 국악한마당>, <중구민과 으랏차차!!>, <글로벌 대전, 세계 문화의 날> 등과 같은 축제가 <대전광역시 중구>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등의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여 개최하는 가운데 민간주체나 단체도 15건의 축제를 주최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민간주체가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가운데 <관평뜰 축제>, <활짝열린 원신흥동 마을축제>, <오량 문화예술 페스티벌>, <법1동 마을축제 너와나 우리 다함께> 등과 같이 지역주민자치회와 같은 단체들에 의해 주최되고 진행된 축제가 8건 개최되었음
- <행복나눔 장태산밴드>, <소리사랑 연희단>, <마음동행예술협회> 등의 생활문화 단체도 5건의 공연과 축제를 주최하여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복합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곳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17건)→유성구(11건)→서구(9건)→대덕구(5건) 순이었으며 동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복합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보면, 2022년 상반기에 6건이 개최되었으며 하반기에 36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 복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8건이었으며 대부분 지역의 문화원에서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외에도 <대전예술의전당>과 <아트브릿지> 등의 문화예술 시설에서도 활동이 진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복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주로 공공주체에 의해 주최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서구문화원> 등과 같이 지역의 문화원에서도 활동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대전예술가의집>과 <대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포함하여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아트브릿지> 등에서도 활동이 개최되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외에도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전문화재단>이 주최한 <BTS(Beat To Story)>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등이 열렸고, <대전시교육청>이 주최한 예술교육활성화프로그램이 <아트브릿지>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음
- 이뿐 아니라 <대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어린이 무형문화 놀이학교>가 개최되었음
-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체험형활동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예술가의집>에서는 <이상민의 음악 산업 그 어마어마한 뒷얘기>와 <이용식의 클래식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등의 강의형교육과 <해설이 있는 오페라>와 같은 복합형교육을 주최하여 진행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복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중 25건이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4) 연극

- ◎ 극공연을 비롯하여 인형극, 뮤지컬, 마술공연, 스탠드업 코미디 등의 활동이 펼쳐진 연극은 공연예술 가운데 음악 다음으로 많은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보여주었음
- 연극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극, 뮤지컬 등과 같이 극공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축제와 마술공연, 토크 콘서트, 포럼 등의 행사가 단발적으로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358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연극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극, 뮤지컬, 인형극, 마술 등을 통해 진행된 공연 활동은 연극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약 97%에 이르는 347건이었음
- 연극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공연에서는 뮤지컬공연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극공연보다 38건이 더 많은 163건의 뮤지컬공연이 개최되었음
- 연극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공연을 활동유형으로 나눠 정리해보면, 뮤지컬공연(163건)→극공연(133건)→마술공연(31건)→인형극(10건)→마임공연(5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연극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142건)→3분기(115건)→1분기(101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연극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140건)→중구(109건)→유성구(82건)→대덕구(15건)→동구(12건) 순으로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19 기간 동안,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개최되던 뮤지컬공연이 대전 지역의 대형 공연장과 민간시설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 사이에는 가족뮤지컬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공연이 <동그라미그리기>, <드림엔터테인먼트>, <가족뮤지컬 오즈> 등 민간주체의 주최 아래, <대전평송청소년센터>,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플랜에이>와 <한밭대학교> 등의 공연장에서 활발하게 개최되었음

- 이와 대조적으로 2020년과 2021년, 도서관에서 어린이 또는 가족 관람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공연을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많이 송출했던 것과는 달리 2022년과 2023년에는 도서관에서 진행한 뮤지컬공연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갈수록 2020년과 2021년에 도서관에서 개최하거나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진행하던 뮤지컬공연은 <한밭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음

- 대신에 <가족마술콘서트 매직오브아트> 외에도 <책 읽어주는 마술사, 선물상점>, <책 속으로 떠나는 마법> 등의 마술공연이 <한밭도서관>과 <진잠도서관>, <송촌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열린 모습들을 통해 도서관에서는 마술공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찾아볼 수 있었음

- 가족뮤지컬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공연 외에도 <위대한 동행-마리 퀴리>, <트롯 악극, 가슴 아프게>, <빨래>, <브라보 편의점>, <현해탄에 던져진 동백꽃>, <브로드웨이 42번가> 등과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공연도 <이음아트홀>, <상상아트홀>, <대전중구문화원>, <한남대 서의필 홀> 등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부분의 뮤지컬공연이 하루 내지는 2~3일간 단기로 진행되는 가운데 <극단 셰익스피어>가 2022년, <상상아트홀>에서 진행한 <초콜릿하우스>가 72일간 진행되어 2022년, 대전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열린 뮤지컬공연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극단 셰익스피어>의 창작 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이 60일간 공연되어 2023년 상반기에 열린 뮤지컬공연 중 최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가족뮤지컬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공연 가운데에서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에서 진행된 뮤지컬공연들이 장기에 걸쳐 열렸으며 <가족뮤지컬극단 오즈>가 주최한 <소가 된 게으름뱅이>, <라퐁젤 > 등이 20여 일간 공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163건의 뮤지컬공연 가운데 129건이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개최되었으며 34건이 공공주체에 의해 열리거나 주최되었음

- 전체 뮤지컬공연을 공연이 개최된 장소 내지는 행사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52건)→대전시어린이회관(20건)→대전시립연정국악원(18건)→한밭대학교(1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극단이나 공연장에서 133건의 극공연이 열렸으며 <아신아트컴퍼니>가 주최하고, 기획한 <흥터>가 최장기간 공연되었음
- <극단 새벽>의 <북어대가리>를 비롯하여 <극단 홍시>의 <계.먹.자-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산책: 신채호의 삶과 사랑 이야기>, <2022 대한민국연극제 대상작 초청, 투견> 등과 같은 133건의 극공연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대전 지역에서 열렸음
 - 뮤지컬공연과 마찬가지로 극공연 또한,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133건 중 102건이 민간주체나 단체에 의하여 주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이뿐 아니라 극공연이 열리거나 진행된 개최장소 내지는 공연장 또한,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공연장을 이용해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로는 <아신극장>과 <소극장 고도>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있었음
 - <나무시어터 창작공간 숲>, <대안공간 구석으로부터>, <소극장 마당>, <작은극장 다함> 등에서도 꾸준히 전문예술 분야의 공연을 꾸준히 진행하거나 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
 - 극공연의 경우, 평균 9~10일 정도의 공연 기간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오랜 기간 개최된 극공연은 <아신아트컴퍼니>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69일간 진행한 <나의 완벽한 로맨스>이었음
 - 2022년에 개최된 극공연 가운데 최장기간 진행된 극공연은 <아신아트컴퍼니>가 주최하여 49일간 <아신극장>에서 공연한 <흥터>이었고, 다음으로는 <극단 셰익스피어>가 기획, 제작하여 <상상아트홀>에서 공연한 <아임파파>이었음
 - 이외에도 <아신아트컴퍼니>가 주최한 <헬로우 미스미스터>를 비롯하여 <차가 강림>, <라면>, <산책: 신채호의 삶과 사랑 이야기>, <한뼘사이> 등이 20일 이상 공연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관저문예회관>의 상주예술단체로 활동하는 <극단 홍시>의 <창작초연, 사문난적>이 2023년 5월, <관저문예회관>과 <소극장 마당>에서 릴레이 공연을 진행하였음
 - 연극의 전문예술부문에서는 공연 이외에도 축제와 북콘서트, 포럼 등 10건의 행사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대전청년 유니브연극제>, <대전국제소극장연극축제>, <대전 1인극 축제>와 <대전 ART마임 페스티벌> 등의 연극 축제가 7건 열렸음
 - 이외에도 <또미의 생일날>과 <빨간 모자야 조심해>, <하얀산> 등과 같은 인형극이 <대전예술의전당>과 <한밭도서관>, <화폐박물관> 등에서 진행되었음
- ◎ 연극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8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이 생활예술 단체의 공연으로 진행되었고, 2건은 행사로 개최되었음
-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연대회, <아마추어 발굴을 위한 스탠드업 코미디대회>와 <대전어린이청소년연극축제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한 <대전 어린이청소년 연극축제>가 연극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으로 개최되었음
 - 공연은 모두 연극 분야의 생활예술 단체가 주최하고 진행하였는데, <직장인 연극 동아리 시시콜콜>이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드림아트홀>에서 이틀간 진행하였으며 <갈마도서관인형극회>가 인형극, <강아지똥>을 <갈마도

서관>에서 공연하였음

- 연극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모두 민간주체와 생활예술 단체가 주최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극 분야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1건이었으며 모두 공공주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음

- 연극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가장 많이 주최한 기관은 <대전문화재단>이었으며 <청춘학교>, <협동조합 극단 놀이터>, <작은극장 다함> 등과 같은 민간주체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여 연극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음

- <2022년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극으로 풀어보는 내 마음의 소꿉놀이>가 <청춘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연극 교육으로 경험하는 활동이 <작은극장 다함>에서 개최되었음

- 인형극을 바탕으로 한 연극 교육이 <산성도서관>과 <대전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음

5) 음악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은 물론 대전 지역 문화예술의 전체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음악에서 진행되었음

-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은 공연예술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의 62%를 차지하는 1,080건이었으며 공연, 행사, 출판, 음반 발매 등을 통해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이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1,080건 중 가장 많이 진행되거나 열린 활동은 공연이었으며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약 97%에 가까운 1,051건의 공연이 진행되거나 열렸음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1,051건의 공연은 성악, 기악, 오페라, 대중음악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공연을 보여준 영역은 기악공연이었음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공연의 57%를 약간 웃도는 602건의 활동이 기악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영역은 154건의 활동을 보여준 성악공연이었음

- 공연과 행사 활동 이외에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한국의 오페라 공연과 관련된 연구서 2권을 발간하기도 하였음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을 활동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공연(1,051건)→행사(27건)→출판(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공연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기악공연(602건)→성악공연(154건)→대중음악공연(144건)→혼합공연(131건)→오페라공연(17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512건)→3분기(277건)→1분기(291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632건)→유성구(257건)→중구(137건)→동구(39건)→대덕구(15건) 순으로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민간주체와 민관 공동으로 주최한 공연은 전체 공연 활동의 약 69%를 차지하였음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공연 중 민간주체가 단독으로 주최한 활동은 730건이었고,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가 공동 주최한 활동은 16건이었음

-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중 가장 많은 공연을 주최한 기관과 시설은 약 350여 건의 공연을 진행한 <대전광역시>와 44건의 공연을 주최한 <대전예술가의집>이었음

-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많은 공연에 <대전시립예술단> 소속의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과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주관단체 또는 기관으로 참여하여 공연을 열거나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

- <대전시민천문대>와 <대전평생학습관> 등도 활발하게 공연을 주최하거나 여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전시민천문대>는 전문예술가와 시민예술가들이 공연하는 <토요 별★ 음악회>를 매주 주최하여 35건 개최하였고, <대전평생학습관>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꿈·사랑·행복 어울림 문화예술무대>를 운영하였음

- 민간주체가 단독으로 또는 민간주체와 공공주체가 함께 진행한 746건의 공연 중 100여 건이 개인 주최의 독주회 공연으로 열렸으며 나머지 공연 활동은 민간주체와 공공주체의 공연단체나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기획한 단체 공연 또는 독주회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열렸음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단체가 주최한 공연의 경우, 대전 지역의 청년 음악가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가장 활발한 주최 활동을 보여주었음

- <일칸토 오페라 앙상블>도 뮤지컬 넘버들 중 관객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넘버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스토리텔링형 성악공연, <뮤지컬 콘서트-베토벤에서 비틀즈까지>와 <이제는 뮤지컬리아> 같이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공연을 2022년과 2023년 연속해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또한,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등이 5건의 공연을 주최하여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앙상블 톤>이 4건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대전피아노연구회>와 <무계첼로앙상블>, <오푸스심포니오케스트라>, <브라스 킹덤>, <솔로리스트디바>, <밴드 프리버드> 등이 3건을 전후한 활동을 주최하여 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외에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단체들은 1년에 평균 1회 정도씩의 공연을 주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주최하거나 진행한 공연은 279건 정도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공연을 주최하여 진행한 곳은 <아트브릿지>이었음

- <아트브릿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약 33건의 성악과 기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 열렸음

- 17건이 진행된 오페라공연의 경우, 14건이 2022년 6월 이후, 개최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열린 오페라공연은 2건밖에 열리지 않았음

- <윤희일>의 장편소설, <코스모스를 죽였다>를 토대로 제작한 창작오페라, <코스모스를 죽였다>를 선보인 <솔리스트 디바>를 비롯하여 <대전오페라단>, <리소르젠떼 오페라단> 등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단체가 주최한 오페라공연이 12건 개최되었음
 - <대전오페라단>의 <마술피리>와 <토스카>, <리소르젠떼 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임영웅>의 <임영웅 콘서트, IM HERO> 등의 몇몇 정도가 2~3일간 연속 공연으로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개최된 대부분의 공연은 1일간의 활동으로 열렸음
-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대중음악공연이 144건 진행되었으며 인기 가수들의 대형 공연과 함께 소극장 형태의 공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공연이 펼쳐졌음
-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현상은 2021년과 2022년과 달리 대중음악공연이 대거 진행되어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144건의 공연이 열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음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중단된 대형 가수들의 블록버스터형 공연이 대전 지역 내에서도 재개되어 <대전컨벤션센터>와 <충남대학교 정심화 홀> 등을 중심으로 열렸음
 - 이와 더불어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중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는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대중음악공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코로나 19 이후 공연을 중단했던 <엘로우 택시>나 <그린버찌라이브하우스> 등 소극장 형태로 운영되는 재즈클럽이나 인디클럽 등에서 대중음악공연이 활발히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엘로우 택시>의 경우, 2022년 5월 이후 55건에 이르는 재즈 공연 활동을 개최하였으며 대전 지역의 대표적 인디클럽인 <그린버찌라이브하우스>에서도 20여 건의 대중음악공연이 진행되었음
 - 2022년, 옛 <청년구단>의 자리에서 새로 오픈한 <디캔센터>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공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KIM'S TRIO>, <밴드 오울구>, <봉숭아프로젝트> 등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대중음악 뮤지션들의 공연을 진행하였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가 <미긱페이스(옛 대전극장)>의 자리에 지역 음악 산업을 견인할 최적의 창작 거점으로 <대전음악창작소>를 2022년 개소하였음
 - 이뿐 아니라 대전역 근처 철공소 거리의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문화공감 철>이 문을 열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더불어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젊은 대중음악 뮤지션들의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었음
 -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비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운영하는 <수요브런치콘서트>를 통해서도 대중음악공연이 활발히 개최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음
 - <아트그라운드 플래닌>, <탄방동 파티잔> 등에서도 젊은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대중음악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더 뮤지션> 등의 공간에서도 트로트 등의 대중적인 친화적인 음악 활동을 하는 가수들의 공연도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음악의 전문예술 부문에서는 축제를 비롯하여 공모와 경연, 토크 콘서트 등의 행사가 27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행사 중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은 축제였으며 2022년과 2023년 상반기 동안 15건의 음악 관련 축제가 개최되었음
 - <대전현대음악제>와 <대전국제음악제>,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대전 소극장 오페라 축제> 등과 같은 축제 외에도 <대전 재즈 페스티벌>, <대전인디음악축전 플레이樂>, <대전 GARAGE FEST> 등처럼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가 함께 진행되었음
 - 이외에도 6건의 경연이 행사 활동으로 개최되었는데, <대전오페라단> 등과 같은 민간주체가 지역의 공연 예술계를 선도해 나갈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주최한 <대전오페라단 국제 성악 콩쿨 예선>과 <대전 뮤직아티스 컴페티션>이 2022년, 첫 경연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음
 - 음악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행사는 공공주체에 의하여 주최되기보다는 민간주체가 주최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전체 행사 활동 중 18건이 민간주체가 주최하여 연 것으로 집계되었음
- ◎ 음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91건이었으며 80건의 공연과 11건의 행사가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행사는 7건의 축제와 4건의 경연으로 진행되어 <대청호 벚꽃축제 전국 트로트 가요제>와 <제24회 대통령상 전국합창 경연대회>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주최한 3건의 경연대회와 1건의 민간주체가 주최한 경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대전인디음악축전>와 <전국기타동아리 대축제>, <목(木)소리 음악회> 등의 축제가 열렸음
 - 음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공연은 기악공연 외에도 성악공연, 오페라공연, 대중음악공연, 혼합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50여 건의 기악공연이 개최되었음
 - <아넬로 클라리넷앙상블>, <에덴뮤직 정기연주회>, <대전하모니카합주단 정기연주회>, <대전윈드오케스트라>, <코리안색소폰오케스트라>,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 등의 생활예술 단체가 한 차례씩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음
 - 이런 가운데 <서구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가 <관저문예회관>을 비롯하여 <건강대학병원>, <대전평생학습관>에서 5건의 공연을 진행하였음
 - 기악공연 대부분이 생활예술 단체의 정기연주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시민천문대>에서 정기음악회로 매주 진행하는 <토요 별★ 음악회>에서 생활예술과 관련된 12건의 기악공연이 진행되었음
 - 21건의 성악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대덕구여성합창단>, <동구구립(고운매)여성합창단>를 비롯하여 <성모여성합창단>, <가양2동 빛고을합창단>, <대전청춘합창단>과 같은 생활예술 단체들의 합창공연이 10건 개최되었음
 - 이외에도 <아리랑코러스>, <대전성악동호회> 등의 성악공연이 <쏘울브릿지>, <유천초등학교>, <신흥문화공원> 등에서 개최되었음
 - 대중음악과 관련해서는 1건의 공연이 있었으며 생활예술 단체인 <대전악기놀이터>의 정기공연, <HALLOWEEN PARTY>가 <그린빈버찌라이브하우스>에서 개최되었음
 - 음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을 주최하거나 진행한 주체를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공공주체와 민간

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활동을 포함하여 민간주체에 의해 진행된 활동은 59건이었으며 32건이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진행한 활동이었음

- 음악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91건의 활동 가운데 21건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70건이 하반기에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해 살펴보면, 중구(30건)→유성구(26건)→서구(23건)→동구(7건)→대덕구(5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51건이었으며 공연예술 가운데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대전평생학습관>, <대전중구문화원>, <유성구평생학습원> 등에서 많이 개최되었고, 이외에도 <아가랑도서관>, <한밭도서관> 등에서 열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으며 이 중 <유성구평생학습원>과 <서구평생학습원>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외에도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단체인 <노이에클랑>과 <인터뮤직>이 음악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주최하여 진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음

- <대전중구문화원>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가곡 부르기>, <나도 성악가가 될 수 있다> 등과 같이 성악을 바탕으로 한 활동 보다는 우쿨렐레, 아코디언, 기타, 칼림바, 색소폰 등과 같은 악기를 바탕으로 한 기악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음

-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체험형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희창의 거꾸로 보는 음악사>, <한필웅의 숨겨진 명곡, 명연주를 찾아서> 같은 강의형활동이 <대전서구평생학습원>에서 개최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대전문화재단>의 <꿈다락토요문화학교-청소년 송캠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예술감상교육-꿈꾸는 예술탐험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음

- 2022년에 개소한 <대전음악창작소>에서 방송 드라마의 음악감독 등을 초청하여 <대전음악창작소 명사 초청 오픈트랙 특강>을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음악의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 가운데 39건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112건이 하반기에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49건)→중구(40건)→유성구(39건)→동구(17건)→대덕구(6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가운데 5건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12건은 민간주체가 주최하여 진행된 활동이었음

2-3. 시각예술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 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시각예술의 전체 활동은 총 1,594건으로 집계되었음
- 시각예술에서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전체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회화(648건)→혼합(279건)→공예(198건)→서예(156건)→사진(147건)→디자인(88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예술의 전체 활동 중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980건의 활동이 진행된 전시였으며 다음으로는 행사가 108건 있었으면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이 498건이 진행되었음
- 시각예술에서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은 964건이었으며 전체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회화(474건)→혼합(214건)→사진(111건)→공예(51건)→서예(50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897건의 전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사 59건, 출판 6건이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 현황을 시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381건)→3분기(304건)→1분기(279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2022년 한 해 동안 시각예술에서 열리거나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은 132건이었으며 회화(47건)→혼합(26건)→사진(23건)→서예(15건)→디자인(8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83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전시이었음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은 498건이었고, 지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부문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회화와 관련된 교육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시각예술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활동의 약 43%에 이르는 683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으며 906건이 민간주체, 5건이 공공주체와 민간주체 공동으로 추진되거나 진행되었음
- 공공주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에서 높은 참여를 보여주었고, 민간주체는 전문예술 부문에서 전시와 행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전문예술, 생활예술과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통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던 2021년, 시각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과 2022년에 진행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을 합친 활동 현황을 비교해 보면, 678건의 활동이 있었던 2021년 대비, 약 1.9배가 증가한 1,291건의 활동이 2022년에 열리거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 전시와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개최되거나 진행된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964건으로 집계되었음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절반에 가까운 49% 정도의 활동이 회화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으며 활동유형으로는 개인전시가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전체 활동의 약 84%를 차지하는 808건이 민간주체에 의해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공공주체가 주최한 153건의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을 주최한 기관은 28건의 활동을 개최하거나 주최한 <대전광역시>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전광역시>는 일부 지원 내지는 후원 등의 형식을 통해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개시된 시점을 기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2분기(381건)→3분기(304건)→1분기(279건) 순으로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 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시(897건)→행사(59건)→출판(6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462건)→유성구(239건)→서구(176건)→동구(76건)→대덕구(10건)→미상(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중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은 전시이었으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개최된 전시는 897건이었음
 -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93%에 이르는 활동이 전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 중 457건이 개인전시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440건이 단체전시 형식으로 열렸음
 - 회화에서 가장 많은 458건의 전시가 개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혼합에서 있었고, 사진에서도 106건의 전시가 진행되었음
 - 시각예술 전문예술의 전시에서 특이한 사항은 예년과 달리, 건축에서 해외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포함해 4건의 전시가 개최된 점과 코로나 19 이후,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해외의 작가와 작품들을 바탕으로 기획된 시각예술 관련 전시와 교류전 등이 문화원 갤러리와 민간주체의 갤러리 등에서 자주 열린 점 등을 손꼽아 볼 수 있겠음
 -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의 전시 중 공공시설을 이용해 개최한 전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가장 많은 91건이 개최되었고, 다음으로는 43건의 전시가 <대전중구문화원>에서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민간시설을 이용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에 자리한 <영 갤러리>에서 가장 많은 약 50여 건 남짓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중구의 <이공 갤러리>에서 38건, 유성구에 소재한 <갤러리 고트빈>과 <갤러리 M>에서 각각 37건 정도의 전시가 열렸음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시를 분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2분기(361건)→3분기(278건)→1분기(258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됨

- 위드 코로나시대가 본격화된 이후라 할 수 있는 2022년 하반기에 전시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했으나, 2023년 상반기의 현황과 2022년의 상반기 현황을 비교해 볼 때, 20건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음
-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전시가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중구(426건)→유성구(235건)→서구(157건)→동구(69건)→대덕(9건)→미상(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 132건이 진행된 시각예술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 중 가장 활동이 많았던 분야는 회화였으며 회화에서는 47건의 활동이 개최되었음
 -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회화(47건)→혼합(26건)→사진(23건)→서예(15건)→디자인(8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각·설치에서는 1건의 활동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을 점검해보면, 전체 활동 132건의 약 63%를 차지한 전시 외에도 공모와 경연, 축제 등이 열린 행사가 49건 진행되거나 열렸음
 -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개최지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구(61건)→서구(30건)→유성구(24건)→대덕구(9건)→동구(8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94건)→1분기(38건) 순으로 나타났음
 - <대전사진밴드>, <시나브로회>, <남전 한국화회>, <표현회>, <행복한 드로잉회> 같은 생활예술 단체들이 정기 전시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보여주었음
 - <한밭 전국 사진 공모>,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대전 디자인공모전>, <내가 Green그림 환경 공모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7건의 공모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23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주최하거나 개최되었음
 - 특히 <대전광역시>는 2022년에 <대전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대전 디자인공모전>, <대전 청년주간 메인포스터 공모전> 등 11건의 공모대회를 주최하여 진행하였음
 - 이와 함께 <뿌리미술실기대회>, <KIGAM 지구사랑 미술대회>, <이응노미술대회> 등과 같은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디자인 문화융화·시민체험 축제> 등과 같은 축제가 시각예술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 시각예술의 문화예술교육 할부문 활동은 조각·설치를 제외한 회화, 서예, 디자인, 드로잉 등에서 진행되었음
 - 498건의 활동이 진행된 시각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면, 공예(144건)→회화(126건)→서예(91건)→디자인(67건)→혼합(39건)→사진(1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각·설치에서는 1건의 활동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시각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진행된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2022년 상반기에 244건, 하반기에 254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활동 기간은 평균 13일 정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개최지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성구

(121건)→중구(116건)→서구(100건)→대덕구(96건)→동구(65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대전중구문화원>, <대덕구문화원>, <대전동구문화원> 등과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 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진행한 곳은 <유성구평생학습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여성가족원> 및 관련 기관에서도 활발히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되었고,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등은 물론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비래동행정복지센터>, <법2동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밀착된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진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서예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많았고, <여성가족원> 등에서는 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제작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체험형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강의형활동과 이론과 제작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복합형활동이 각각 14건씩 진행되기도 하였음
-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던 문화와 건축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모습을 확인해볼 수가 있었음

<표 74>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표 75>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76>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77> 2022~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78>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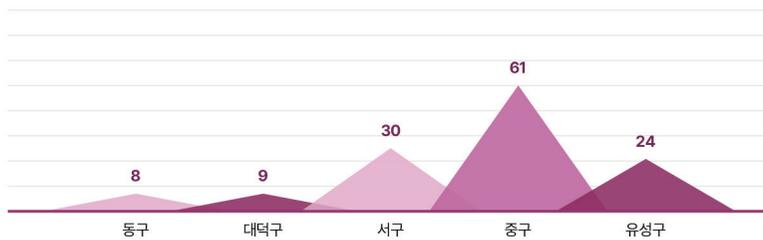


<표 79>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80>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81>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생활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82>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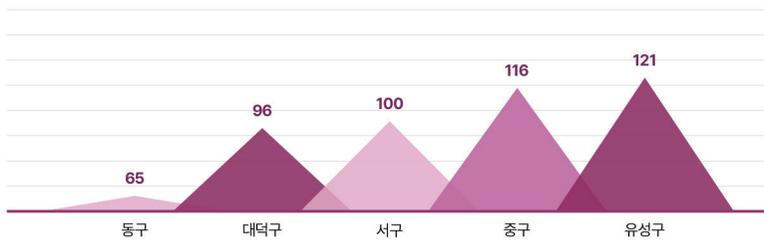


<표 83>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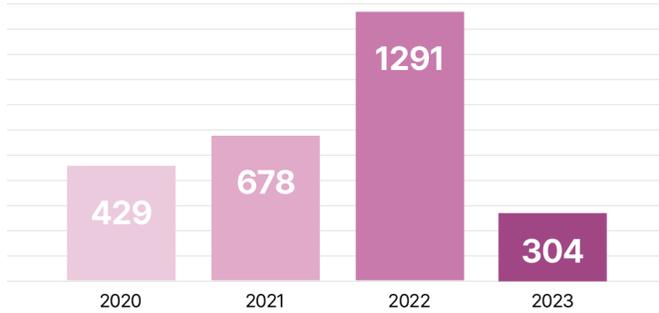
<표 84>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85> 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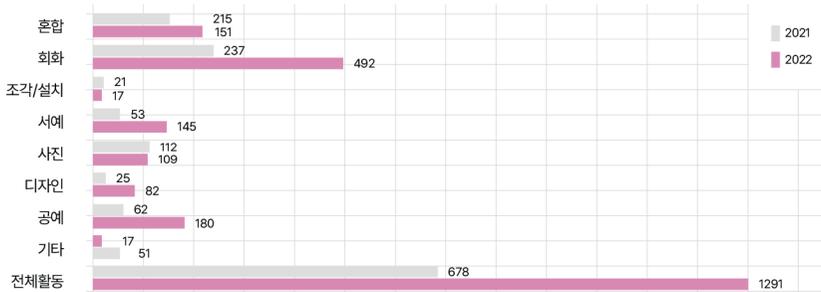


<표 86> 2020~2023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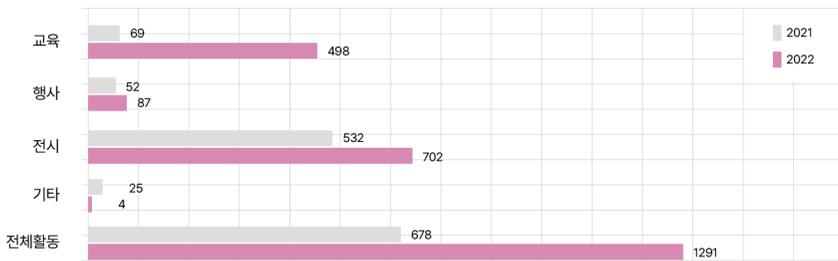


2023년도는 전체 활동 중 전문예술 부문만 집계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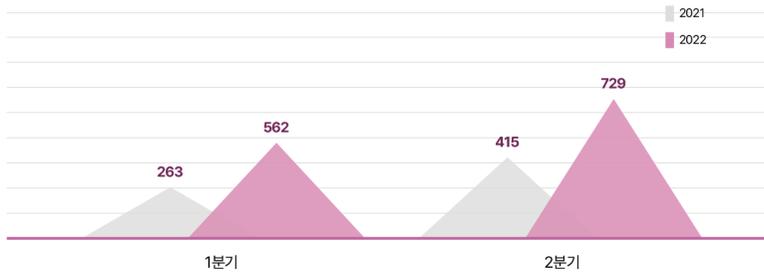
<표 87>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88>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89>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90> 2021~2022년 대전 지역 시각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1) 건축

◎ 건축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행사와 전시, 출판물 통해 11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열렸던 <대전건축문화제>가 2022년에는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되어 학술대회와 전시, 어린이건축학교, 건축디자인캠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건축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음

- 2021년 12월 말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속해 열린 전시, <202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특별전-짓다 그리고 담다, 대전의 근대건축>과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여 152일간, 개최된 전시, <2023 테미오레 상반기 기획전, 지피지기-주거문화 해부>, <한남대>와 독일의 <카를스루에공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등을 전시한 <HNU NOMAD 독일 도시건축 전시회> 등의 건축 관련 전시가 4건 개최되었음
- <건축과 기후관리>, <건축과 자유-잔카를로 데 카를로와 프랑코 분추가의 대화> 등 건축 관련 출판물과 번역서가 <심지>와 <이유출판사>를 통해 3권 출간, 발행되었음
- 이외에도 공모와 포럼 등의 행사가 2020년과 2021년과는 달리, 모두 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거나 열렸음
- 건축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개최한 운영 주체들을 주체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대전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의해 주최된 활동이 7건이었고, 4건의 활동이 민간기관에 의해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상의 건축 분야의 전문예술 활동을 3개의 분기로 나눠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에 5건, 2023년 상반기에 4건, 2022년 상반기에 2건의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 생활예술 부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최한 <한국농촌건축대전>의 경연 활동만이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 <대전건축문화제>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어린이건축학교>와 <건축디자인캠프>를 통해 집에 관한 궁금증으로 건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친환경 목가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등을 일반시민에게 제공하였음

2) 공예

- ◎ 공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51건이었으며 49건의 전시와 2건의 공모가 있었음
- 공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전시를 통한 활동이 전체 활동의 약 96%를 차지하였으며 도자를 비롯하여 목공예, 옷칠, 천연염색, 보자기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전시 22건과 단체전시 27건이 개최되었음
- 단체전시로는 <대전광역시 공예품 대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하여 <대전공예가협회>와 <한국국제퀼트협회>, <구채웃칠협회>, <한국보자기아트협회 대전충남세종지회> 등과 같은 공예단체의 정기전이 개최되었음
- 도예 전문의 신문규와 김규리가 참여한 <dYap 2022>이 <(재)이구열장학재단>의 문화예술인지원사업 전시로 기획되어 <대전북합터미널 DTC 아트센터>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이와 더불어 박상열, 최성재, 류슈, 방화선, 홍승일, 박종선 등 지역 공예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중구에 자리한 공예 전문 갤러리인 <지소 갤러리>를 비롯하여 <모리스 갤러리>, <젠아트 갤러리>, <팍스 갤러리>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화폐박물관>과 <골프존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골프존 조이마루> 등에서도 열리기도 하였음

- 공모를 통한 공예의 전문예술 활동은 모두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과 관련된 행사였음
 - 공예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가운데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거나 진행한 활동은 전체 활동의 약 86% 를 차지하는 43건이었으며 공공이 주최한 활동은 7건에 불과하였음
 - 공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개최된 장소의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민간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열린 경우가 26건이었으며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해 개최되거나 진행된 경우는 23건이었음
 - 공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1분기와 3분기(각각 18건)→2분기(15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개최된 장소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22건)→유성구(18건)→서구(8건)→동구(3건) 순으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 공예의 생활예술 부문에서는 3건의 전시가 진행된 데 비해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시각예술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가 전국의 지역 공예예술가들과 문화취약계층을 연계하여 진행한 생활예술교육 활동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행복한 공예교육 작품 전시>가 <갤러리M>에서 개최되었음
 - 이외에 직물 공예와 관련된 생활예술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버니나 아카데미 소잉 페스티벌>과 <유성구 평생학습 한마당 우리동아리 킷이 이야기>가 열렸음
 - 공예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유성구평생학습원>, <여성가족원>, <산성도서관> 등에서 많이 개최되었으며 <유성구평생학습원>이 가장 많은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공예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경우, 지역의 도서관에서 많이 진행되어 <산성도서관>을 비롯하여 <월평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한밭교육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등에서도 공예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강좌를 개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전통나라관>에서는 <다문화 토요놀이학교>를 통해 전통 공예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열기도 하였음
 - 지역의 문화원이나 도서관에서 종이공예, 목공예, 라탄공예, 클레이아트 등 다양한 공예 관련 문화예술교육 강좌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활발히 열리는 가운데 <여성가족원>에서는 자수, 손뜨개, 생활 매듭, 재봉 등 직물 등과 관련된 공예 교육 강좌들이 활발히 열리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3) 뉴미디어

- ◎ 뉴미디어 분야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8건이었으며 모두 전시를 통한 활동이었음
 - 뉴미디어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열린 전시로는 개인전시와 단체전시가 각각 4건씩 개최되었음
 - 4건의 개인전시는 2022년, 대전시립미술관이 어린이미술을 위한 전시로 기획한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개척자,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그림은 자연같이>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갤러리 고트빈>에서 열린 김희수와 유장우, 안소라의 개인전시였음
 - 단체전시로는 백남준과 이이남의 작품으로 구성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의 <백남준-이이남 기획전-IN PROGRESS>와 <대전시립미술관>이 미술관의 소장품들로 개최한 전시가 있었음
 - 뉴미디어와 관련된 전시는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6건 진행되었고,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2건 개최되었음
 - 뉴미디어 분야의 전체 활동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와 중구에서 각각 3건씩 열렸고, 유성구에서 2건의 전시가 개최되었음
- ◎ 뉴미디어 분야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3건이었으며 2건의 공모와 1건의 경연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뉴미디어에서 열린 공모와 경연은 <대전광역시>와 한국<조폐공사>가 주최한 활동들이었음
 - <대전광역시>가 주최한 <대전 블루스 유튜브 영상 공모전>과 <정신건강의 날 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대국민영상공모전>이 비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음
- ◎ 뉴미디어 분야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7건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이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 미래도시>등과 연계되어 개최되었음

4) 드로잉

- ◎ 드로잉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8건이었으며 모두 전시를 통한 활동이었음
 - 드로잉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대전드로잉협회> 등의 단체전시가 7건 있었으며 1건의 개인전시가 2022년 5월, 개관한 <성심당문화원>의 개관기념전시로 열렸음
 - 7건의 전시 활동을 3분기로 나눠 정리해보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건씩 열렸으며 1분기에 2건의 전시 활동이 있었음

- 4건의 전시 활동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열렸으며 6건의 전시가 증구에서 개최되었음
- ◎ 드로잉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활동은 5건이었으며 <행복한 드로잉회>와 <행드회> 등의 전시가 개최되었음
 - <행복한 드로잉>, <행드회>, <대전이미지드로잉회>, <대전어반스케치>가 1건씩의 전시를 <갤러리 카페 63번 길>, <아트스페이스B>, <도예카페 소예갤러리> 등에서 2분기에 진행하였음
- ◎ 드로잉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부문 활동은 4건이었으며 3건의 오일파스텔을 바탕으로 한 드로잉 교육과 1건의 디지털아트 드로잉 교육이 <구암평생학습센터>와 <대전증구문화원>에서 열렸음

5) 디자인

- ◎ 디자인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13건이었으며 8건의 행사와 5건의 전시 활동이 있었음
 - 13건의 전체 활동을 보여준 디자인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8건이 공모, 강연과 포럼,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진행되었음
 - 디자인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전체 활동의 85%를 차지하는 11건이 공공주체 또는 기관이 주최한 행사 활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전디자인페스타>를 비롯하여 <대전패션컬렉션>, 등이 열렸음
 -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국내에 소개된 외국 영화 포스터를 소개하는 <영화의 얼굴, 거리의 예술 : 1950~60년대 한국의 외국 영화 포스터>를 <포스터연구회>가 기획하여 <대전창작센터>에서 개최하였음
 - 2023년 5월에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의회>가 주최한 <제15회 대전광역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및 전국페스티벌>이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 디자인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3분기(6건)→2분기(4건)→1분기(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 디자인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8건이었으며 5건의 공모와 2건의 전시가 개최되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전청년주간 공식 포스터 공모전>을 비롯하여 <대전 디자인 공모전>,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대전광역시>의 주최 아래, 개최되었음
 - 전시로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한 <대전 옥외광고 대상 수상작 전시>와 <FMS DJU 패션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음
- ◎ 디자인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67건이었으며 <여성가족원>에서 활발히 열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음
 - 디자인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유성구평생학습원>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활동이 있었으나, <북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 <동부여성가족원>과 <여성가족원(본원)>에서 진행된 활동을 하나로 합치면, 33건의 교육 활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활동의 76%에 이르는 51건의 교육 활동이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과 의류, 직물 등과 관련된 교육이었음
-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다>와 같이 리사이클링 디자인에 바탕을 둔 <토요꿈다락문화학교>의 프로그램과 <한밭도서관>을 비롯하여 <어린이도서관>, <월평도서관> 등 서구에 자리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방정환 선생님 팝업북 만들기>와 <나다움을 찾아 떠나는 그림책 여행>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교육 활동이 활발히 열리기도 하였음

6) 사진

- ◎ 사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전시, 출판, 공모 행사를 통해 111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단체전시보다는 개인전시가 더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사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은 전시이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개최된 전시는 106건이었음
- 단체전시보다는 개인전시가 더 많이 개최되었으며 39건의 전시가 개최된 단체전의 1.7배가 넘는 67건의 전시가 개인전시로 치러졌음
- 개인전시가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임혜옥, 임상섭, 이오상 등의 작가들은 2022년, 한 해에 두 번의 개인전시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사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민간주체가 전체 활동의 약 92%를 주최하거나 개최하였으며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민간주체가 운영되는 시설이나 갤러리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런 가운데 <갤러리 더 빔>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전시가 열렸고, 17건의 전시가 <갤러리 탄>에서, 그리고 <작은창큰풍경 갤러리>에서는 14건의 전시가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회원전과 공모수상작 전시 등의 형태로 단체전시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역 사진작가들의 동인단체라 할 수 있는 <이마고사진학회>, <산오름포토>, <이룩회>, <여류사진가회> 등도 정기전시 내지는 회원전을 개최하였음
- 이외에 <라이프사진전-더 라스트 포토>와 함께 <유니세프 사진전-모든 어린이를 위해>, <울릉도·독도 생태사진전-바다위·바닷속 독도, 울릉도를 만나다> 등의 대중적 사진 전시가 개최되었고, 벨기에에서 열린 <제6회 포토브뤼셀 페스티벌>의 행사로 <(주)벨기에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나무의 공명(The Resonance of Trees)>의 순회전이 <갤러리 탄>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전시 외에도 사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출판과 행사를 통해서도 진행되었는데, 박해용과 류길순의 사진집 2권이 발간되었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한밭 전국사진 공모전>과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공모전> 등의 행사가 3건 열리기도 하였음

- 사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특정 시기에 집중해 열리거나 진행되지 않고, 연중 균형적인 곡선을 이어가는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사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3분기(38건)→1분기(37건)→2분기(36건) 순으로 열리거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사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35건)→중구(29건)→유성구(28건)→동구(19건) 순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 사진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23건이었으며 7건의 공모와 16건의 전시가 개최되었음
- <효문화뿌리축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리가족 사진전시회>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백제사 진대전 공모>, <대전 중구청>의 <책의 풍경 사진공모전> 등의 사진 공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렸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7건의 공모대회 가운데 6건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등과 같은 공공주체에 의해 열린 행사였으며 1건만이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관한 행사였음
 - 16건의 전시가 사진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으로 열렸으며 이 중 5건의 전시가 <사진산책>, <풍경사진동우회>, <공감채사진동우회>, <대전사진밴드> 등의 생활예술 단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음
 -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와 <대전 중구청> 등이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작품 전시회>, <근대골목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사진전>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출품작들을 전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이 어린이들과 복지관 봉사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 <우리마을 권리전>을 <대덕구청 청년벙커 외곽와글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조달청> 공사관리과 직원들이 공사 현장의 에프소드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한 <조달청 공사관리과 사진전 : 공사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가 <대전시청>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사진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구(13건)→동구, 대덕구, 서구(각각 3건)→유성구(1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에 7건의 활동이 있었던 데 비해 16건의 활동이 하반기에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 13건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사진에서 진행되었으며 <대전평생학습관>, <여성가족원>, <모두사랑장애인아간학교>, <목상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렸음
- 13건의 활동이 진행된 사진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문화예술부문과 관련된 시설 내지는 기관 외에도 <목상동 행정복지센터>, <모두사랑장애인아간학교> 등과 같이 비문화예술 기관과 시설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 특히 <모두사랑장애인아간학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였고, <동구평생학습관>에서는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역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동구를 사진에 담다>를 각각 1차례씩 열기도 하였음

7) 서예

- ◎ 50건의 활동이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건의 행사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전시를 통한 활동이었음
 - 49건의 전시와 1건의 행사가 진행되거나 개최된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전체 활동의 90%에 이르는 45건의 활동이 지역의 서예 단체와 개인 등 민간주체에 의하여 진행되거나 주최한 활동이었음
 -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개최한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4건은 대전 내 소재한 공공기관과 시설이 주최한 활동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기획한 순회전시이었음
 - 49건의 전시 중 31건이 <(사)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 대전지회>와 <(사)한국서도협회 대전·충남지회>을 비롯하여 <보문연서회>와, <충청여류서단>, <한국추사연목회> 등 지역의 민간 서예 단체의 정기전 형식으로 치러지거나 진행된 전시이었음
 - 2023년 상반기에는 국내의 서예 작가들이 참가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전국 순회전시, <철필의 미학-세계서예비엔날레 순회전>이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18건의 개인전시가 개최되어 소설 우태환을 비롯하여 귀원 송인도, 운당 이용희 등이 개인전시를 열었으며 이채연이 첫 번째 개인전시를 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3년 4월 개관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동부청사 갤러리> 개관 기념전시로 봄빛 김영목의 개인전시가 열리기도 하였음
 - 전국적 연례 경연 행사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김호연재 여성회화대회>와 2021년에 이어 개최된 <대전서예한마당>와 같은 2건의 행사가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으로 개최되기도 하였음
 -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많이 열린 시설 내지는 장소는 <대전예술가의집>이었으며 전체 활동 중 20건이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되었고, <대전갤러리>에서도 9건의 활동이 열렸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2건밖에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현황을 개최된 시기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25건)→1분기(14건)→3분기(1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예의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39건)→유성구(5건)→서구(4건)→대덕구(2건) 순이었으며 동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 서예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5건이었으며 3건의 행사와 12건의 전시가 진행되었음
 - 행사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슬기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캘리그래피 공모전>과 <동춘당 전국 회화대회>, <대한민국 캘리그래피 아트대전>과 같은 1건의 공모와 2건의 경연대회가 열렸음
 - 서예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열린 행사 가운데 2건은 민간주체가 진행하였고 1건은 공공주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음

- <석정서회>, <성보연서회>, <평사서회>, <캘리그래피붓향> 등과 같은 생활예술 단체가 주최한 전시가 열렸으며 <캘리그래피회>가 첫 번째 정기전을 열었음
 - 민간주체인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와 <416기억저장소>가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명언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회>와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그날을 쓰다>와 같은 전시를 개최하였음
 - 서예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민간주체가 주최한 전시는 11건이었으며 <안산도서관>이 도서관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최한 <안산도서관 캘리그래피 동아리 별빛손글씨 회원전>만이 공공주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음
 - 서예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분기를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2건밖에 진행되지 않은 데 비해, 하반기에 13건의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서예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10건)→유성구와 대덕구(각 2건)→서구(1건) 순이었으며 동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서예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행사장소는 <대전예술가의집>과 <대전중구문화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 서예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문화원을 비롯한 시설과 기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처럼 지역과 아주 밀착한 기관과 시설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91건의 활동이 진행된 서예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대전중구문화원>과 <대덕문화원>, <대전평생학습관> 등에서 주로 열렸으며 <유성구평생학습원>에서 가장 많은 15건이 진행되었음
 - 눈에 띄는 점은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자리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비래동행정복지센터>, <법2동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의 주민센터 시설과 기관을 이용해 교육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곳을 통해 23건의 문화예술 교육 부문 활동이 열린 점이라 하겠음
 - 전통적인 서예와 캘리그래피, 붓펜 교육 외에도 전각, 색연필 캘리그래피, 수채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등 같은 교육 강좌들도 활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8) 조각·설치

- ◎ 조각·설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모두 22건의 전시 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조각·설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전시이었으며 16건의 개인전시가 열렸으며 6건이 단체전시 형식으로 개최되었음
 - <대전조각가협회>의 국내외 유명작가가 참가한 <대전조각가협회-국내외 유명작가 초대교류전>이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개최되었고, <대전시립미술관>이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12명의 조각가의 작품들로 구성된 <현대미술기획전시-조각. 공간. 퍼즐>과 <화폐박물관>에서 열린 <한발조각회>의 <38 한발전>등의 전시가 열렸음

- 이외에도 정광호를 비롯하여 김진, 임승균, 김지영, 송효근 등의 조각 및 설치 관련 개인전시가 <이응노미술관>을 비롯하여 <문화공간 주차>와 <갤러리 슝> 등에서 개최되었음
- 조각·설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을 개최한 주체별로 나눠 살펴보면, 민간주체에 의하여 주최되거나 진행된 활동이 16건 있었고, 5건의 활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유성문화원>,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 시립미술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주체에 의하여 개최되었음
- 조각·설치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2분기(16건)→3분기(5건)→1분기(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활동이 9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활동이 12건 있었던 조각·설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9건)→유성구(7건)→서구(5건)→동구(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9) 판화

- ◎ 판화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2건이 있었으며 모두 단체전시를 통한 활동이었음
 - 판화에서는 대전 지역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지의 판화작가들이 참여한 <전국판화가협회교류-대전 현대판화미술제>와 대전 지역 판화작가들의 단체인 <46번가판화가회>의 정기전이 개최되었음
 - 판화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모두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1건의 활동이 공공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음
 - 2건의 전시는 2022년의 활동이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시 등을 통한 판화 활동이 없었음
- ◎ 판화에서는 7건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있었으며 이 중 6건이 <대전중구문화원>에서 진행되었음
 - 판화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주로 목판화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었음
 - 8주간의 판화 교육을 통해 제작된 대덕구 중장년 구민 10명의 작품을 공개한 <판화! 마음을 색칠하다 행복을 새기다>가 <대덕문화원>에서 열렸음
 - 판화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전부 2022년 상반기에 5건 열렸고 7월에 2건이 진행되었음

10) 혼합

- ◎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회화 다음으로 많은 활동은 보여준 혼합에서는 전시와 축제, 공모 등의 행사를 통해 214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전체 214건의 활동이 진행된 혼합의 경우, 전체 활동의 68%에 이르는 147건이 민간주체에 의해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으며 공공주체에 의해 주최된 열린 경우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67건이었음
 - 시각예술의 회화, 조각·설치, 사진, 뉴미디어 등의 분야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함께 활동한 혼합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전시이었음
 - 전체 활동 중 186건의 전시가 진행된 혼합의 경우, 146건의 단체전시와 40건의 개인전시가 함께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를 통해 단순히 회화와 서예, 서예와 공예 등 시각예술의 다른 분야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거나 작가들이 모여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작가가 시각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다루면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대전 지역의 젊은 시각예술 작가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혼합의 전시는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개최된 경우는 101건이었고, 85건의 전시가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열렸음
 - 공공시설이나 기관 가운데 혼합의 전시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은 <대전예술가의집>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 중구문화원 갤러리> 등이었음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갤러리 가운데는 <영아트 갤러리>와 <이공 갤러리>, <갤러리 M> 같은 곳에서 많이 개최되었고, <문화공간 주차>, <스페이스 테미>, <아트스페이스 128>, <레드엘 갤러리>, <동양장>, <구석으로부터> 등에서도 혼합의 전시가 진행되었음
 - <대전 국제아트쇼>,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등과 같은 행사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부연합(UCLG) 총회>의 연계 행사로 개최된 <앙데팡당korea 국제미술제>와 <에바 알머슨 특별전> 국내외 도시와 대전 지역의 작가들의 교류전 등을 통하여 해외의 작가와 대전 지역 외의 작가들이 참여하거나 작품들을 소개하는 혼합의 전시와 행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지역 청년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D_ART+ 대전청년작가 장터>가 2022년과 2023년 진행되었고, 2022년에는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1회, 혼합의 독립 행사로 2회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2023년 상반기에도 1회 개최되었음
 - 혼합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76건)→1분기(74건)→3분기(64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혼합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중구(117건)→서구(42건)→유성구(40건)→동구(13건)→대덕구(1건)→미상(1건) 순으로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 혼합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회화 다음으로 많은 활동이 보여준 혼합에서는 전시와 행사 활동을 통해 26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26건이 진행된 혼합 분야의 생활예술 활동은 8건의 행사와 18건의 전시이었음
 - 혼합 분야의 생활예술 활동을 개최된 시기로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에 5건이 개최된 데

비해 하반기에 21건의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 분야의 생활예술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은 공모와 경연,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afe 대전 안전생활 그림 & UCC 공모전>, <대한민국 여성미술 대전 공모> 등과 같은 공모대회가 가장 많은 5건 개최되었으며 <대전 서구 사회적 경제 장터>에서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제작된 미술품이 거래되기도 하였음

- <바끄로>, <시나브로회> 등의 생활예술 단체가 진행한 전시가 4건 있었으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개최한 전시 17건이 <대전동구문화원>, <대전서구문화원>, <대전여성가족원> 등에서 열렸음

- 혼합 분야의 생활예술 활동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10건)→중구(9건)→유성구(4건)→동구(2건)→대덕구(1건) 순으로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39건이었으며 대전 지역에 소재한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주체가 활발히 주최하여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혼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양한 기관과 장소 등에서 단발적으로 열리거나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한밭도서관>, <월평도서관>, <산성어린이도서관>, <구즉도서관> 등 지역의 도서관과 <여성가족원>과 <남부여성가족원>, <북부여성가족원> 등에서 혼합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많이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대전선사박물관> 등 대전 지역의 주요 문화기반 시설에서도 9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집콕 탐험대-선사예술기행>과 <색색 쓱쓱 깔깔, 다함께 놀자!-어린이 도슨팅 프로그램> 등 같은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대전선사박물관>과 <이응노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혼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에서는 <대전문화재단> 이 주관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과 같이 장기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혼합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열리는 체험활동 외에도 <그림 속 유럽여행>, <움직이는 미술관 세계의 명화 인문학 특강> 등 7건의 활동이 강의형 활동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를 꿈꿔보는 사람들-꿈꾸미>와 <재미있는 미술-그 뒷이야기>와 같이 이론 학습과 작품 제작과정을 함께 체험하는 복합형 활동도 3건이나 있었음

11) 회화

◎ 시각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회화였으며 전시, 행사,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474건이 회화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회화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의 경우,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개최한 활동은 37건이었으며 전체 활동의 92%에 이르는 437건의 활동이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회화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122건이 열렸으며 351건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갤러리 등에서 개최되었음
 - 회화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 중 96%가 조금 넘는 활동이 전시였으며 458건의 전시 중 288건이 개인전시로 열렸고, 단체전시는 170건 개최되었음
 -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정명희미술관> 등의 기획 및 특별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영아트 갤러리>와 <갤러리 숨>, <갤러리 메르헨> 등에서도 단체전시가 기획전시 및 초대전, 2인전 등의 형식을 통해 열렸는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영아트 갤러리>에서 가장 많은 단체전시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한국전업미술가협회>를 비롯하여 <화이트포럼회>, <옥당한마루회>, <대전여류미술회>, <대전구상작가협회> 등의 회원전과 정기전시 형식의 단체전이 개최되었음
 - 이재호를 비롯하여 강용이, 강용식, 최선희, 이지연, 백향기, 배수운, 윤애수, 송현지, 박수역, 류소리, 김병진, 유화연, 이상무, 최성희, 홍춘기, 최정훈 등이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개인전시를 각각 2회씩 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시 이외에도 시각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출판과 행사를 통해서도 진행되었는데, 15건의 행사와 1건의 출판 활동이 있었음
 - 미국이 사실주의 미술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세계를 평전형식으로 소개한 <에드워드 호퍼 그래픽 노블>이 2023년, <이유출판사>에서 발간되었음
 - 행사는 주로 공모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요 브런치 콘서트>를 통해 화가 한수희의 강연회가 열렸음
 - 회화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194건)→3분기(155건)→1분기(125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회화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나눠 정리해보면, 유성구(136건)→중구(228건)→서구(67건)→동구(36건)→대덕구(7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 시각예술 분야에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회화였으며 전시와 행사를 통해 47건의 활동이 회화 분야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회화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시는 26건이었으며 행사는 21건이이었음
 - 21건의 행사 가운데 12건이 <뿌리미술실기대회>, <한마음사생대회>, <대덕에서 과학을 그리다> 등과 같은 경연 대회였으며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어린이 문화다양성 그림 공모>, <대전 스마트시티 챌린지 미술대회> 등과 같은 공모가 8건 열렸고, 민간주체가 4건 주최하였으며 17건이 공공주체가 주최하였음

- <남전 한국화회>, <표현회>, <자연과 향기>, <소석회>, <대전여류수채화협회> 등과 같은 생활예술 단체의 전시가 21건 열렸으며 <효 실천 전국사생대회 수상작 전시회>와 <먼저가수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전시>가 <한국효문화진흥원>과 <대전광역시>의 주최로 개최되었음
 - 회화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17건 개최되었고, 하반기에 30건의 활동이 하반기에 진행되었음
 - 회화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22건)→유성구(11건)→서구(9건)→동구(3건)→대덕구(2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회화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별로 나눠 살펴보면, 민간주체가 진행한 활동은 28건이었으며, 19건이 공공주체가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 ◎ 회화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26건이었으며 모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이었음
- 회화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대전중구문화원>, <유성구평생학습원>, <대덕문화원>을 비롯하여 <여성가족원>, <관저문예회관>, <한밭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교육이 제작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회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경우, <유성구평생학습원>이 가장 많은 활동을 개최하였음
 - 한국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이 약 40건 전후해 열린 데 비해 약 80여 건이 서양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한국화 교육의 경우, 민화를 다루는 강좌가 가장 많았으며 문인화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그 뒤를 이었음
 - 서양화의 경우, 어반 스케치를 포함한 수채화 강좌가 가장 많은 19건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유화 관련 교육과 연필화를 바탕으로 한 강좌가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도 15건 전후해 열렸으며 <대전시립미술관>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2-4. 다원예술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 부문의 전시와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개최되거나 진행된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은 912건으로 집계되었음
-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문화예술의 안팎을 넘나들며 진행된 다원예술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준 분야는 탈분류이었음
 - 다원예술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다제간(341건)→탈분류(329건)→영화(151건)→만화·애니메이션·웹툰(9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조사된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면, 탈분류(103건)→영화(98건)→다제간(98건)→만화-애니메이션-웹툰(8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다원예술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은 탈분류에서 98건, 다제간에서 84건의 활동이 진행된 데 비해 영화에서는 3건, 만화-애니메이션-웹툰에서는 4건 진행되었음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다원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또한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다제간에서 159건, 탈분류에서 128건, 영화에서 50건이 진행되었으나, 만화-애니메이션-웹툰에서는 6건밖에 확인하지 못했음
 - 다원예술의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애니메이션-웹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축제를 통한 행사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개최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원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축제는 191건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2년 5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을 주최한 주체별로 나눠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운영하는 주체가 주최한 활동은 792건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한 활동은 111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 진행된 758건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교육(343건)→행사(242건)→전시(61건)→공연과 상영(각각 56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사한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된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1년에 299건의 활동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2.6배가량의 활동이 늘어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다원예술에서는 다제간이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음
 - 큰 변화가 있었던 활동유형은 문화예술교육 부문이었으며 2022년, 117건의 교육 활동이 다원예술에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294%가 늘어난 343건의 교육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은 행사, 공연, 전시, 출판 등을 통한 380건이었으며 탈분류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음
- 380건의 활동이 진행된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행사(144건)→상영(99건)→전시(69건)→공연(26건)→기타(42건)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분기(157건)→3분기(134건)→1분기(89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된 개최장소와 행사장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나눠 파악해보면, 중구(132건)→유성구(87건)→대덕구와 서구(각각 60건)→동구(4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89건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축제였으며 이를 통해 2022년에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와,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대전 국제 캐릭터 & 콘텐츠페

어> 등이 열렸고 2023년에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덕물빛축제>, <대한민국 동행축제> 등이 개최되었음

- 다원예술의 전문예술 부문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밭도서관> 등과 같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같은 문화예술 유관 시설과 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 상영회와 축제 등을 활발히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외에도 <대청공원>, <대동천>, <이현마을거대역새습지공원> 외에도 <천연기념물센터>, <중리동 상점가>, <쌍청 웨딩홀> 등에서 다원예술의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IBS과학문화센터>, <대전시민천문대>, <국립숲체원> 외에도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대전사회혁신센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전광역시지부>, <기초과학연구원> 등과 같이 비문화예술 기관이나 시설 등이 주최하는 경우도 많았음

◎ 다원예술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189건이었으며 탈분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에서 진행된 생활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45건이 열리거나 진행된 데 비해 144건이 하반기에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가장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행사였으며 행사로 축제 101건, 공모와 경연대회가 36건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특히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대전광역시 청소년동아리연합페스티벌> 등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와 <식장산 생활문화 축제>, <선사마을 축제>, <갈마울 주민화합 마을축제>, <대청호 호박 축제> 등과 같은 지역 또는 마을을 거점으로 한 축제가 많이 열리거나 개최되었음

- 101건의 축제 가운데 82건이 2022년 하반기에 지역의 생활예술 활동과 동호회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다원예술의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을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유성구(89건)→서구(33건)→동구(29건)→중구(20건)→대덕구(18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한 활동은 141건이었으며 45건이 민간주체가 주최하였고, 3건은 민간과 공공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활동이 증가한 다원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343건이었으며 음악과 무용, 시와 소설, 공예와 회화, 영화와 미디어 등의 분야와 과학, 역사, 여행, 인문학, 전통놀이과 게임 등 비예술적인 분야가 하나로 결합하거나 어우러져 진행된 다제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문화원이나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시립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의 경우, 지역의 도서관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문화재단> 등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많긴 하였으나, 이외에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민간 문화

예술단체나 기관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활발하게 개최하거나 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2021년의 활동도 비교해 볼 때, 2022년에는 영상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거나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다제간은 물론 탈분류에서도 크게 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190건이 열렸고, 하반기에는 153건이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다원예술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구(162건)→유성구(69건)→서구(56건)→대덕구(43건)→동구(1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에서 축제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라 할 수 있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다원예술에서 개최된 축제는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 모두를 합해 191건이었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축제나 행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워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열리기 시작하여 하반기에 들어서면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191건의 축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제간에서 107건이 열렸으며 다음으로는 탈분류(67건)→영화(13건)→만화·애니메이션·웹툰(4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191건의 축제 중 2022년 상반기에는 34건의 축제가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으며 126건이 2022년 하반기에서 진행되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31건이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다원예술의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부문에서 열리거나 진행된 축제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었던 지역 중심의 마을 축제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와 함께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등이 개최되었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UCLG 웰컴축제>, <프랑스 영화 주간> 등과 같은 한시적인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대전 국제 하루 영화제>, <유성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노·사영화제> 등이 첫 번째 대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표 91>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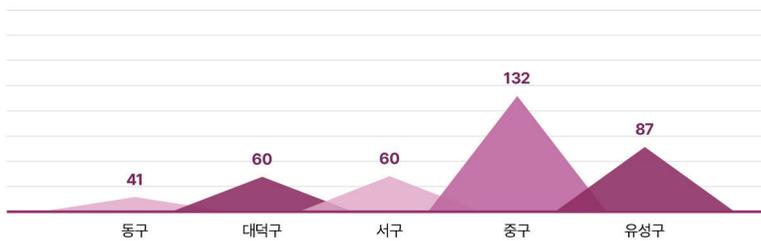


<표 92>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93>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94> 2022~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전문예술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표 95>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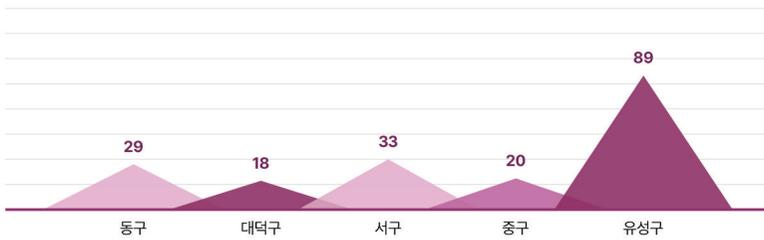


<표 96>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표 97>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98>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생활예술 부문 분 활동 현황



<표 99>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야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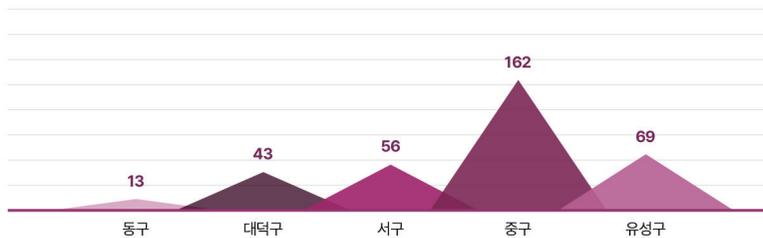


<표 100>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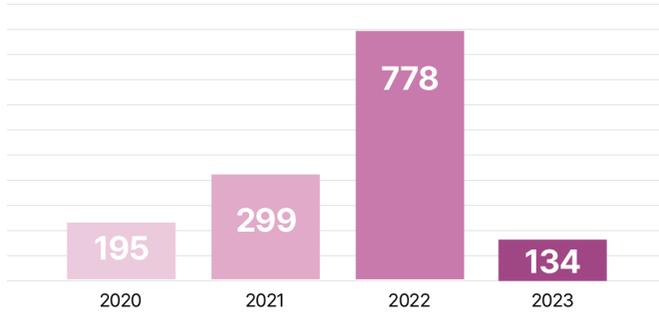
<표 101>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분기별 활동 현황



<표 102> 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부문 자치구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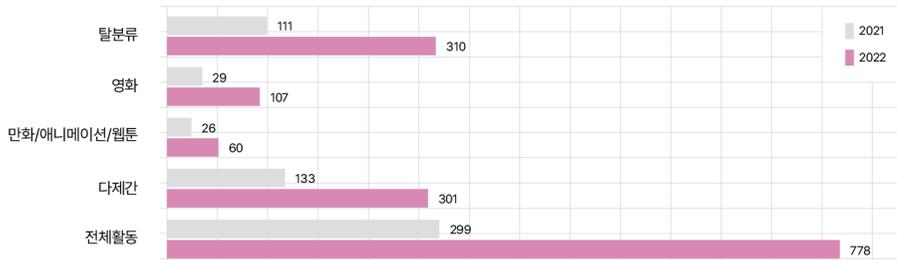


<표 103> 2020~2023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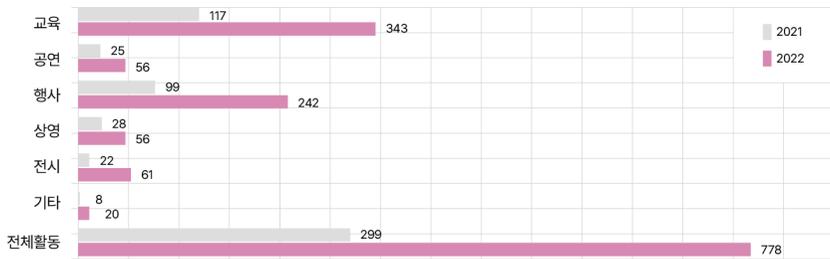


* 2023년도는 전체 활동 중 전문예술 부문만 집계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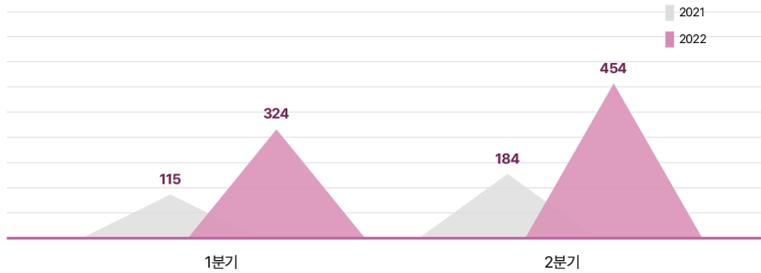
<표 104>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분야별 활동 현황 비교



<표 105>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활동유형별 활동 현황 비교



<표 106>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분기별 활동 현황 비교



<표 107> 2021~2022년 대전 지역 다원예술 자치구별 활동 현황 비교



1) 영화

◎ 일일반 상영관에서 진행된 영화 상영을 제외하고, 영화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활동은 98건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활동은 지원 활동이었고 다음으로는 행사이었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2년에는 <어떻게 안해여>를 비롯하여 <오래된 나라>, <알에서 깨어난 오리>, <설화 대전을 담다> 등 장·단편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창작 지원을 하였고, <대전독립영화제>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개최되었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2023년에도 <퇴근>, <이색식당>, <몽환상점>, <파리지옥> 등의 독

립영화 11건과 <여우를 먹은 마녀>, <추락하는 총칭> 등 5건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창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19년, 제1회 대회 개최 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단된 <대전영상예술대상>의 2023년 제2회 시상식을 비롯하여 대전의 청년영화제, <FILM IN DAEDOEK>과 <철도영화제>를 영상산업 분야의 지원사업으로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음으로 행사가 영화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37건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철도영화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등이 개최되었음

- 이 중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가 20분 이하의 단편영화를 가지고 주최한 <대전국제하루영화제>,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가 개최한 <제1회 노·사영화제>, 청년영화제 <FILM IN DAEDOEK> 등이 2022년에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였음

- <대전아트시네마>에서는 신은실, 유운성, 조명진 등의 영화평론가들이 참여하여 영화 상영과 무비토크를 함께 진행하는 <우리 시네마테크에서 만나, 시네토크>를 비정기적으로 주최하여 개최하였음

- 2022년 5월에 대전 지역의 영화인들이 모여 <대전 영화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을 위한 영화관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대전 영화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고민하는 in D 대전 영화 포럼>이 <소소아트시네마>에서 열리기도 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시네마테크 대전>에서 <시네마테크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하였음

◎ 영화의 전문예술 상영 활동이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2022년과 2023년 대전 지역에서는 행사를 겸한 상영회를 포함하여 도서관 영화상영회를 비롯한 특별상영회, 시사회 등의 활동이 23건 있었음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는 2022년 3월부터 행사 활동을 겸한 영화상영회를 매달 주최하여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에서 개최하였음

-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또는 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도서관에서 자주 개최되었던 도서관 영화상영회가 2022년에는 <둔산도서관>, <관평도서관>에서만 열렸고,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도서관에서 자주 열리던 영화상영회가 마술공연으로 대체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2023년에는 도서관 영화상영회가 13건 열렸는데, 이 중 8건이 <가수원도서관>에서 개최되었음

- 이외에도 <대전인권위원회>가 2022년, <평등길 1110 공동 상영회>를 대전 지역에서 두 차례 개최하였고, 독립영화 <낮에는 덩고 밤에는 출고>와 <대전, 1960>, <좁바는 좁비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등의 시사회와 상영회가 <대흥영화사>와 <대전시네아트>, <씨네인디유> 등에서 진행되었음

◎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개최된 <수요브런치콘서트>에 2023년 4월, <화전놀이>, <88번길의 기적> 등 대전을 무대로 영화를 제작해 오고 있는 독립영화감독, 배기원이 출연하여 독립영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였음

◎ 영화를 통한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으나, <대전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웰컴 투 용호마을>가 제작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주도 아래, 용호마을에서 영화시사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의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영화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50건 진행되었음
 - 영화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모두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음
 - 영화를 직접 제작해보는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3분 영화 만들기 워크숍>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쉽고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유튜브 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및 편집 등과 관련된 교육 활동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와 함께 <내가 만드는 VR 콘텐츠>, <3분 일상 VLOG 제작 워크숍>, <메타버스 숏드라마 제작교실>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게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린이 미디어 습관을 알아보는 동시에 영상 제작 워크숍을 함께 진행한 <우리는 미디어 가족 탐험단!>과 <학부모 미디어교육, 혐오 차별 대응과 영상 제작> 등의 교육 활동을 주최하여 열리기도 하였음
 - 영화와 영상 제작 관련 교육 외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슈를 비평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직접 비평을 작성하게 하는 <시민 미디어 비평가 입문> 같은 영상 관련 비평 교육 외에도 <대전 남성 페미니즘 모임>의 주최 아래, 열린 <82년생 김지영 다시 보기>와 같은 영화 리터러시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영화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22건, 하반기에 28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2) 만화·애니메이션·웹툰

- ◎ 만화·애니메이션·웹툰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상영회와 전시,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81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만화·애니메이션·웹툰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상영였으며 <한밭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74건의 애니메이션 상영회가 열렸음
 - 애니메이션 관련 전시로는 TEN-KEI의 <TEN-KEI 2022 Solo Exhibition_ESPERANÇA>와 전영재의 개인전, <전영재-Variety>가 <문화공간 주차>에서 열렸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대전웹툰캠퍼스 NFT 프로젝트>를 주최하여 <대전웹툰캠퍼스>에 입주한 작가들의 웹툰을 NFT로 제작해 <롯데홈쇼핑 NFT샵>에서 판매하는 한편,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대전웹툰캠퍼스>에서 전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웹툰캠퍼스>에서 <만화가 있는 저녁>을 통해 임리나와 두부의 토크 콘서트가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열렸음
- ◎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DICU-M>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만화가협회>가 주관하는 <대전 만화의 날>, <대전대학만화웹툰 잡페어> 같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웹툰 관련 행사와 축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음

- ◎ 만화·애니메이션·웹툰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6건이 진행되었는데, 애니메이션 더빙 과정과 성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발표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스피치 애니메이션 성우 교실>이 <산성도서관>에서 열렸고, <대전시 청자미디어센터>이 주최한 <코딩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대전웹툰캠퍼스>에서 개최한 <기초 만화 교실>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음

3) 탈분류

- ◎ 탈분류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은 329건이었으며,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었음
 -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에서는 103건의 활동이 있었으며 전체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행사(45건)→전시(34건)→공연(18건)→출판(4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축제이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최 아래, 열린 <마을미술 프로젝트-제1회 대청호 이현습지 환경미술제>를 비롯하여 <대덕물빛축제>, <풍성한 인생을 음미하라> 등 33건의 축제가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56건)→1분기(28건)→3분기(19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40건)→서구(19건)→유성구(17건)→동구(15건)→대덕구(12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탈분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경우, 대전 지역의 공공시설과 시설, 문화예술 단체의 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등을 통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개최장소와 행사장소를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58건)→서구(22건)→유성구(21건)→대덕구(18건)→동구(9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열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음
 - 탈분류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67건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61건은 하반기에 개최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 탈분류에서 공연예술을 비롯하여 시각예술, 문학,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분야가 부분적 또는 총체적으로 결합하거나 연계하여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103건이었음
 -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영화와 공연예술 등이 결합되거나 연계하여 활동이 진행된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는 행사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시(34건)→공연(18건)→출판(4건)→상영(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행사에서는 연례 행사로 치러지는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와 <대전예술인대회> 같은 축제 외에도 <대전관광공사>가 2022년 12월 31일, 영상쇼와 인디밴드, 퓨전국악, 팝페라 등 지역

예술인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가운데 연말 행사로 주최한 <출발 2023! 대전 0시 대전스카이로드 카운트다운 페스티벌>가 <으능정이 대전 스카이로드>에서 열렸고, <대전 사회혁신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공연으로 보여준 <다가치 대전>과 같은 축제를 <행정안전부>와 <커먼즈 필드> 등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음

- <대전민예총>의 주최 아래, <마당극패 우금치>, <밴드 프리버드>, <작은극장 다함>, <청년노래단 놀> 등이 참여한 <골령골 평화예술제>가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대청호 이현습지 환경미술제>가 대청호 두메마을과 이현동 거대역세 습지공원 일대에서 영화상영회와 도자포퍼먼스, 음악회 등과 함께 진행되었음
- <대전중구청>이 주최하고 <대전국학원>이 주관하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모여라~ 으능정이로>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기획 아래,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전시로는 그림책의 원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 활동이 많았으며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연작 서사시로 써내려간 김희정 시인의 연작시 <골령골>을 10인의 작가들이 붓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전시한 <강희정 서사시 골령골, 이제 국가 차례이다> 등이 개최되었고, 이외에도 미용의 예술적 승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기성작가와 신진작가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한국메이크업교수협회>의 정기 전시, <OLD & NEW 초대작가전>, <한국분재협회 대전지부>의 <한발분재전시회> 등과 같은 전시가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열렸음
- 공연은 <책과 모래로 꿈을 꾸는 아이들> 등과 같은 샌드아트 공연이 <국립중앙과학관>, <구즉도서관> 등에서 대면과 비대면 진행방식으로 5건 진행되었고, <관저문예회관>에서 영화와 클래식 음악을 결합하여 <스크린으로 만나는 클래식 2022 윤보선 고택 쌀롱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은 탈분류의 공연 형식을 교육 행사에 도입한 <공연형 청렴 교육 청렴 라이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는 예술단체, <구석으로부터>와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여 라이브더빙 번사극, 입체낭독극 등을 공연한 <대덕 문스팟 달빛 부르쓰>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이에 3차례 진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團(단) 무용단>이 디지털 과학기술 미디어아트와 한국무용을 접목하여 선보인 <춤과 미디어의 만남 시즌II- 춤추는 사이언스>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었음
-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민간주체나 단체가 주최하거나 연 경우는 18건이었고, 84건이 공공주체에 의한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거나 개최한 활동이었음
- 탈분류에서 진행된 전문예술부문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시점을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56건)→1분기(28건)→3분기(19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40건)→서구(19건)→유성구(17건)→동구(15건)→대덕구(12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98건의 축제, 공연, 공모 등의 활동을 통한 생활예술 활동이 탈분류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의 전문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의 57%를 차지하는 56건이 행사로 진행되었음
- 탈분류의 행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영상 공모전>과 <대청호 벚꽃축제 뮤직비디오 전국 공모전> 외에도 특정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예능·영상 작품전 공모> 등 영상을 기반으로 한 탈분류의 생활예술 공모대회가 18건 개최되었음
- 탈분류의 공모대회를 주최한 기관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에도 <청춘나들목>,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17건을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으로 열린 축제는 34건이었으며 이 중 24건을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주최하였음
- <대전광역시>의 <양성평등주간 대전여성문화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대덕구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글로벌 대전(Global Daejeon)-세계 문화의 날> 등과 같은 축제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의해 개최되었음
- 판암동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관이 함께 운영하는 <판암사랑하자 네트워크>의 주최 아래, <시가 익어가는 마을 축제>가 <쌍청 웨딩홀>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지역 주민회를 중심으로 한 <봉이마을 가족사랑 한마당 축제>, <노은 한마음 문화제> 같은 축제가 열리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전시와 공연을 통한 활동이 탈분류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진행되었는데, <펜문학 시화전, 가을, 시앓 물들다>와 <도서관을 만나다> 등처럼 문학과 시각예술이 결합한 전시가 <국제펜한국본부대전광역시위원회>와 <한밭도서관>의 주최 아래, 개최되었음
- 탈분류의 생활예술 부문에서 진행된 공연은 주로 시낭송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대전시민천문대>에서 주최하고 개최한 <금요 별 음악회 & 시낭송회-별빛 속에 시와 음악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탈분류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의 경우, 민간주체나 단체가 주최하거나 연 경우는 17건이었고, 81건이 공공주체에 의한 기관이나 시설이 주최하거나 개최한 활동이었으며, 20건이 2022년 상반기에 개최되었고, 78건이 하반기에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유성구(40건)→동구(17건)→서구(16건)→중구(13건)→대덕구(12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탈분류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128건이었으며 문학과 시각예술이 결합한 형태의 교육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분류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나눠 살펴보면, 전체 활동의 약 98%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관에서 주최한 활동이 76건이었으며 나머지 49건이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립미술관>, <여성가족원> 등에서 개최되었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동화로 만나는 미디어 탐구생활> 등과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 외에도 <사운드로 읽는 감성 표현 기초>, <시민 미디어 비평가 입문> 같은 성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도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게임과 예술 2 : 환상의 미래도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의 결과를 활용한 연구·교육 아카이브를 출간하기도 하였음
- 대부분의 활동이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작곡과 연기, 촬영교육을 통해 뮤직 비디오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G樂F 4樂(취락퍼락)>과 <AHA! 몸 놀이터-발견의 기쁨> 등과 같은 <꿈다락토요문화학교>가 <대전문화재단>의 주최 아래, 열리기도 하였음
- <대전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마련하여 98건의 공연예술과 2건의 시각예술 관련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4) 다제간

- ◎ 과학, 역사, 여행 등 비예술적 영역의 활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화, 문학 등의 전문예술 부문과 결합하여 진행된 다제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은 98건이었음
 - 다제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 활동 가운데 행사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제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으로 나눠 정리해보면, 행사(58건)→전시(33건)→공연(7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대전 0시 부르스 축제> 같은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다제간의 활동을 통해 개최되는 가운데 <UCLG 웰컴축제>,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대한민국 동행축제> 등의 한시적 축제들이 함께 개최되었음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느티나무 목신제>, <한절골당산제>, <버드내거리제>, <대전 문창동 살구꽃축제>, <태평고을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등 지역과 마을을 거점으로 한 마을 축제도 활발히 재개되어 진행되었음
 - 더불어 코로나 19 이후, 열리지 못했던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축제도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많이 개최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음
 - 행사 다음으로 다제간의 전문예술 부문 활동으로 활발히 진행된 활동은 전시였으며 <대전선사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국립중앙과학관>, <테미오래>, <한밭대 국제교류관>, <대전일보 사옥> 등에서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아티언스 대전 결과 보고전>을 비롯하여 넓고 광활한 우주, 신비로운 천문 현상을 예술로 표현한 천문예술 융합 전시, <우주와 예술이 만날 때 : ABC> 등과 같이 과학기술과 시각예술이 결합해 열린 전시들이 <대전시립미술관>의

<대전창작센터>, <IBS과학문화센터>, <대전 과학체험관>, <대전일보 사옥>, <동구 소재동 마당집 17호> 등에서 열렸음

- 다제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시점을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분기와 3분기(각각 40건)→1분기(18건)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제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의 전체 활동을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유성구(59건)→중구(20건)→동구(9건)→대덕구(7건)→서구(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제간에서 진행된 전문예술 부문의 전체 활동 가운데 11건이 민간 주체가 주최한 활동이었으며 87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추진하거나 주최한 활동이었음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다제간의 축제가 전문예술 부문은 물론이거나 생활예술 부문에서도 2022년 하반기에 활발히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제간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은 축제, 공연, 공모 등의 활동을 통해 84건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활동 중 95%를 차지하는 80건이 행사를 통한 활동이었음

- 행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축제였으며 66건의 축제가 다제간 생활예술 부문에서 열리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덕에서 놀자! 한 발 더 가까이 공동체 DAY>,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 <동춘당 문화제>, <효문화 뿌리축제> 등과 같은 축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거점으로 한 마을 축제와 지역 축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관저2동 마을축제>, <원신흥동 마을축제>, <갈마2동 갈마골 단풍거리 축제>, <꽃피는 성남동 웃음꽃 축제> 등 마을 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축제가 하반기에 활발히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산내동 플라터너스 축제>는 첫 번째 행사를 마련하였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도 활발히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유성구>는 <유성구청소년어울림마당>의 첫 대회를 주최하여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었고,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 <한국뷰티아티스트교육협회>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 생활 뷰티 대회, 뷰티 놀자>와 <청소년어울림마당>, <대전광역시 청소년동아리 연합페스티벌>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가을 사이언스데이>, <대전 마을 미디어 한마당>, <대전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대전시민천문대 별 축제> 등 과학기술을 소재로 하거나 과학기술과 생활예술이 결합하여 진행된 활동도 10건 가까이 있었음

- <대전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최와 주관 아래, 프로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활동 이외에도 <레이싱 이스포츠 패밀리 대전>, <직장인 이스포츠 대회>, <이터널 리턴 플라마켓 루미아 야시장>과 같이 일반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음

- 다제간 생활예술 부문의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1분기에 20건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64건이 하반기에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다제간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지역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유성구(45건)→서구(16건)→동구(12건)→중구(6건)→대덕구(5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제간의 생활예술 부문 활동을 주최한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주체가 26건을 주최하였으며 55건은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3건은 공공과 민간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시각예술과 역사, 문학과 과학, 영화와 여행, 공연예술과 수학 등을 함께 엮은 159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다제간 분야에서 진행되었음
- 159건의 다제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 가운데 전체 활동의 98%에 이르는 156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되었음
 - 다제간의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주로 대전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도서관 이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민천문대>, <대전시립미술관>은 물론 <색동이랑 부모님이랑 함께 해~효!>를 주최한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어린이 무형문화 놀이학교>를 개최한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에서 다제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열렸음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열리는 가운데 <한밭도서관>의 <인문학은 Daejeon is U 4인 4색 인문학 특강>, <대전시립박물관>의 <문화유산답사연구 문화교실>, <한밭도서관>의 <음악과 함께하는 과학이야기>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역사 속 위인들을 연극 놀이 활동과 블랙라이트 공연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교과서 속 역사인물 만나보기>와 애니메이션과 연극이 접목되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한 <유성의 작은 거인들> 등이 <대전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열리기도 하였음
 - VR 기술을 활용한 동화 구연 교육이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산성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음
 - 다제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밭도서관>의 <음악과 함께하는 과학이야기>, <유성도서관>의 <영화 속의 인문학> 등 강의형활동이 33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림이 특 생각이 아하 우리 역사가 보이는 미술관 나들이>, <창의력 쑥쑥 미술수학> 등과 같은 32건의 복합형활동과 <그레비티 스케치로 만드는 내가 그린 VR 그림>, <신나는 수목원생태학교> 등의 체험형활동이 94건 진행되었음
 - 다제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은 2022년 상반기에 99건이 개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60건이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다제간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이 진행된 개최장소를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94건)→유성구(26건)→서구(24건)→대덕구(12건)→동구(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V. 종합 분석과 제언

1. 2022~2023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한 제언

1. 2022~2023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현황 조사를 통하여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재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 2020년과 2021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결과와 달리,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활동을 조사 집계한 결과에서는 5,713건에 이르는 활동이 대전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하는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 들어서는 현저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2년 하반기의 활동 현황과 2022년 상반기의 활동 현황을 비교해보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진행된 활동 건수의 약 1.5배에 가까운 활동 건수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2023년 상반기까지의 활동 현황을 조사 집계한 전문예술 부문의 조사 결과만을 갖고 비교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서 해제를 거쳐 코로나 위드 시대가 본격화된 2022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의 활동 현황은 그다지 차이가 없었음

- 공연예술의 전문예술 부문만 갖고 2021년과 2022년, 2023년의 활동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21년 상반기, 공연예술에서는 311건이 진행된 데 비해 2022년의 상반기에 진행된 공연예술 활동은 458건이었고, 451건의 공연예술 활동이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각예술, 문학 등의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 비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음

- 2021년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 2022년 활동 현황보다는 적었으나,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활동이 약 1.5배 급증하였고, 2021년보다 활동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022년의 상반기 현황 등을 되짚어보면, 2022년의 하반기에 활동이 급증하여 진행된 점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이상 현상으로 봐야 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나, 2023년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침체해 있던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생태계의 움직임이 코로나 19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시민 참여와 마을을 거점으로 한 생활예술과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활동이 활기를 얻은 것도 2023년, 대전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의 양적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음

◎ 2022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분야는 공연예술이었으며 공연예술 중에서도 음악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음

- 공연예술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는 활동이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대중음악공연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음

- 이뿐 아니라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지역의 도서관 등을 통해 비대면 진행방식을 통해 개최되거나 제공되던 뮤지컬 공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역의 대형 공연장이나 콘서트홀 등을 통해 활발히 진행된 점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생태계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라 할 수 있겠음
 -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대전 문화예술 활동과 생태계에 나타난 또 다른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다원예술 활동이 크게 증가한 점을 빼놓을 수가 없겠음
 -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다원예술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부문 활동과 함께 지역과 마을을 거점으로 한 축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와 더불어 문학에서는 2021년에 비해 문학의 중심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출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워드 코로나 시대의 본격화 이후, 대전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음
-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하여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 참여의 문화예술 부문 활동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의 경우,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다원예술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대전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이자 중요한 활동 무대로 축제와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중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연예술,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축제보다도 다른 분야들이 복합적이고 혼합적으로 결합하여 진행되는 축제와 비예술적인 영역과 예술 분야가 서로 연계하여 진행되는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뿐 아니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때 중단되었던 지역의 대표축제들이 다시 개최되었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마을 축제와 지역거점의 축제도 2022년 하반기에 대거 개최되었는데, 이 또한 다제간적이고 탈분류적인 성격을 지닌 축제 형태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음
 - 마을 축제 또는 지역 거점 축제의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는 축제가 자신들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의 발표 무대이자 중심적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통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음
 - 또한, 생활예술 단체나 동호회들은 지역과 마을을 거점으로 한 축제들을 자신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고 공개하는 통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생활예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지역주민과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결과를 통한 제언

-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집계 결과를 통하여 향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사업과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함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분류체계 재설정과 신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에 대한 재고
 -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기존의 문화예술 범주로 규정되던 문화예술의 범주가 확장되어 게임을 비롯하여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문화예술의 공식적인 독립 범주로 규정되었음
 - 먼저 애니메이션의 경우,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분류체계 중 다원예술 분야의 소분류 체계 내 만화·애니메이션·웹툰으로 편입 분류 되고, 뮤지컬은 공연예술의 연극 분야, 게임의 경우 다원예술의 다체간 분야 내에서 이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이전에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독립 분야로 설정된 게임,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단일 또는 독립 분야의 활동으로서 나타나지는 않음
 - 이런 가운데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결과를 보면, 뮤지컬의 경우, 연극 분야에서 연극의 중심이었던 극공연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애니메이션, 게임과 관련해서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 등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대전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이 분야들의 문화예술 생산과 소비 현장에서 발휘하는 문화예술적 잠재력 등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들에 대한 향후 정책과 방향성을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더욱이 게임의 경우,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외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에서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작품 제작과 전시, 공연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음
 - 음악 분야에 포함되어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중음악공연의 경우에도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140여 건이 넘는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대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뮤지션 내지는 대중음악과 관련된 전문예술인들의 활동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었음
 - 2023년 6월,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전통 미술 등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진흥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적 움직임이 발동하였음
 -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변화는 물론 문화예술 생태계의 움직임과 변화에 맞춰 대전 지역에서 진흥해야 할 문화예술의 범위도 새롭게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와 함께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기존 조사체계와 대상에도 수정과 보완이 따라야 함을 제언하고자 함

◎ 전문예술 개념의 재개념화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재고

- 대전 지역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정책에서 진행되어 온 전문예술 부문의 지원정책과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예술 활동의 여부로 규정하고 설정하는 경향이 많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또한 완전한 정의와 범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직업인 내지는 특수직업인으로서 전문예술인의 활동은 활동 경력의 유무로 판정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지닌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활동 경력 유무로 전문예술인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방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동시대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펴보면, 명확한 체계로 구축되어 온 과거의 예술 분야와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시대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진 까닭에 전문예술가가 지원 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와 선정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술의 실재와 개념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나름의 정책적 기준을 가지고 유동적이며 주관적인 특성을 본질적으로 지닌 예술 또는 전문예술 개념을 명확하게 구축하여 어떤 방향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전문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존의 정책적 정의와 범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설정하여 전문예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함

◎ 전문예술단체의 개념 재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재고

- 전문예술을 업으로 삼고 활동하던 전문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규정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정의와 범주가 그 이전보다 확장되고 개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예술인복지법>에서는 활동 경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예술인 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대전은 물론 다른 지역들 대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예술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
- <예술인복지법>과는 달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전문예술인의 정의에서는 예술 활동을 활동 경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문화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전문 예술인이자 특수직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인정받고자 문화예술의 활동을 하는 이들을 전문예술인으로 규정하는 <유네스코>와 비슷한 입장이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청년 예술인을 제외하면 활동 경력의 유무로 추진되고 있는 전문예술인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겠음
-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한 양적 평가로 전문예술인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현행의 제도와 더불어 좀 더 개방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전문예술인을 재개념화하여 설정하고, 이를 통해 활동 경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활동 성과의 잠재력과 예술적 가능성을 질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전문예술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쌍방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함

◎ 전문예술 활동 주체에 대한 개념 재설정을 비롯하여 민간주체의 문화예술 단체와 법인, 시설 등의 지원제도 방안 강화 및 확충에 대한 재고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전문예술단체를 비영리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 지역에서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비영리의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해 오고 있음
- 대전광역시의 지정 전문예술단체로는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를 비롯하여 <(사)한국미술협회대전지회> 등이 있고, 이외의 단체로는 <나무시어터사회적협동조합>, <우리민족의소리 예술단>, <극단아신아트컴퍼니>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연예술과 관련된 단체이었음
- 이외에도 비록 표본조사에 의한 조사 결과이기는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원센터>가 발간한 <2021년 기준 공연예술>(2022)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연단체는 55개 단체인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와 함께 공공주체에 의해 11개의 공연장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연장 시설도 1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많은 활동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화랑, 갤러리, 기타 문화시설 등에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음
- 이런 점들을 통해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는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 외에도 다양한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갤러리, 기타 문화시설 등이 적지 않은 기여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대전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들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구조와 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운영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은 취약한 재원 구조와 조직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현행의 전문예술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상주단체와 공간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갤러리, 기타 문화시설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런 점에서 전문예술 활동 주체와 지원 대상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의 전문예술 예술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시설의 운영 주체들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전문예술 지원제도의 도입과 모색을 비롯하여 이들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재고와 재인식이 필요함을 제안하겠음
- 그러나 민간주체의 전문예술 단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주체의 활동에 한해서라는 근거와 전제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대전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특화 전략 구축 방향에 대한 재고

- 예년의 조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통해 대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에 바탕을 둔 활동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음
- 이에 비해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예술 부문의 문화예술 활동은 전체 활동 가운데 매

우 낮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음

-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대전과학비엔날레>, <아티언스 대전> 등 시각예술의 영역을 제외한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예술 부문의 활동을 대전 특화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이 시각예술 외에도 공연예술 등에서도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을 통한 대전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문화예술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작 의욕과 동기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된 전략적 방안과 사업을 새롭게 확충하고,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와 더불어 대전 문화예술 활동과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에 바탕을 둔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이들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단순히 지원하고 뒷받침해주는 방향에서보다는 이들의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망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하고 또 하나의 지역 문화예술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전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진흥정책과 현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진흥하는 방향에서 모색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전략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특화 전략을 쌍방향적으로 수립하고,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함

◎ 생활예술 개념의 재개념화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재고

-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예술과 생활문화, 시민예술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경계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대전의 생활예술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예술 부문 활동의 특징은 취미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를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는 생활예술 정책은 생활문화 개념에 더 가까운 방향에서 접근하고, 수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와 지역거점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함
-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전 지역의 생활예술에 대한 정책적 진흥 방안도 지역거점과 공동체 지향의 방향에서보다는 취미공동체의 방향에서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대전의 생활예술 정책 방향도 향유 정책의 측면에서 전문예술인에 의해 주도되는 예술체험, 예술관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생활예술은 문화예술의 체험과 참여, 감상과 관람 행위를 통한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참여를 뛰어넘어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예술 생산과 체험을 만들어갈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 등을 재고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이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되고 구축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함

참고문헌

대전문화재단(2021),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대전문화재단(2022),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대전세종연구원(2020), <대전세종 인포그래픽스 31호-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대전세종연구원(2017), <대전 생활문화 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공연예술 실태조사(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미술시장조사(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예술 분야 동향지표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예술자립 사업을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s://www.kopis.or.kr/>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네오룩 <https://neolook.co.kr/>
대전공연전시 <http://www.gongjeon.kr/>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
대전문화재단 <https://dcaf.or.kr/>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포털 <https://artlife.dcaf.or.kr/>
대전시립연정국악원 <https://www.daejeon.go.kr/kmusic/>
대전예술의전당 <https://www.daejeon.go.kr/djac/>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nl.go.kr/seoji/>
아트허브 <http://arthub.co.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unesco.or.kr/unesco24.com>
(재)예술경영지원센터 <https://www.gokams.or.kr/>
전문예술법인단체 <https://www.gokams.or.kr/44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https://bnk.kpipa.or.kr/>
한밭도서관 <https://www.daejeon.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 이외 각종 문화예술 관련 포털 사이트와 기관의 알림, 공지, 뉴스 기사, 소식 알림, 블로그 등을 통해 대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했으나, 지면 관계상 웹 사이트 주소는 생략함

2023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발행일 2023년 10월

조사·연구 예술문화교육협동조합

발행처 (재) 대전문화재단

*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